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에 물든 우리를 구원해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목숨 바쳐 찬양하며 살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6년 3월 12일 (토) 제 1575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다!”

2016 고난주간 3월 21-26일, 예수그리스도의 고난 되새기며 부활 준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교회력 절기 사순절. 특히 사순절의 여섯째 주는 고난주간 혹은 수난주간으로 전 세계 교회가 경건과 절제의 절기로 함께하고 있다.

올해 사순절은 지난 2월 10일 성회 수요일에 시작된 가운데, 고난주간은 3월 21일부터 부활주일 직전인 3월 26일까지다.

요즘 우리는 '고난이 없는 것이 고통'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고난을 말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사건화하고 의미화해 감동을 주기란 쉽지 않다. 또한 교회 안에서 '십자가, 십자가의 무한 영광일세'라고 하는 말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반드시 십자가로 향하고 십자가로 실현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바로 깨닫고 이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전해야 할 절실함을 각성해야 한다. 그래야만 고난주간이 절기로만 기억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또한 주님의 구원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고 살고 있는 것은 갈보리 십자가 구속의 은총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토록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한 구속의 상징이다.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 값을 갚으신 대신 고통을 상징한다. 인류가 당해야 할 참담하고도 자비가 섞이지 아니한 영원한 멸망의 죽음을, 우리를 대신해 지불하신 하나님의 어린양의 놀라운 희생을 나타낸다.

십자가는 멸망당하는 인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절규하시며 돌아오라고 탄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으며, 교회들 지붕 지붕마다 십자가를 달게 됐고, 심지어는 십자가를 목걸이로 만들어 걸고 다니고 있으며, 하나님을 믿

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수호의 상징으로 달고 다니는 시대가 돼버렸다. 그런데, 크리스천들마저도 그 진정한 구속의 의미를 미처 이해하지 못한 채 십자가를 입으로만 찬송하고 있다.

성경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를 기억해보자.

예수께서는 신음하시다가 서서히 서서히 돌아가시지 않으셨다. 십자가의 양편 강도들은 금요일 저녁까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속히 죽게 하기 위해 다리를 꺾었지만 예수께서는 벌써 운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고는 갑자기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다고 성경은 마지막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갑자기 파열돼 돌아가신 증거다. 로마 군인이 죽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주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자 피와 물이 흘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나. 심장이 작동하기를 멈추고 파열됐기 때문에 혈구와 혈청이 나뉘어져서 물과 피가 따로 흘러내린 것처럼 보인 것이다.

인류의 죄를 지시하면서 그 괴로움과 죄의 의식을 더 이상 견디실 수가 없으셔서 예수님의 심장은 그만 터져 버리고 만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못박힘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가 찌르는 아픔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죄악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것이다.

과연 누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가 있을까?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모든 풀들을 밟으로 만들어 기록하려 해도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믿고 가슴 깊이 받아들여 감격해 하는 자들이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다.

십자가의 고통은 육신적인 고통 그 훨씬 이상을 의미한다. 단순히 육신적인 고통만이라면 예수님 옆 강도들도 같은 고통을 당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죄인의 그 엄청난 죄를 지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십자가 고난의 신비를 진정으로 이해할 때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려가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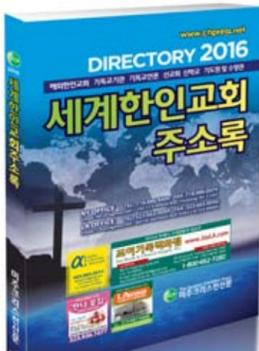
다시 말해서, 의미를 못 찾는 사람에게 고난은 그저 고통일 뿐이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새롭게 한다면 고난은 오히려 최고의 삶을 열어주는 은혜가 된다.

따라서 고난 받는 크리스천들은 이런 이유로 인해 세상을 향한 선물이 된다고, 존 파이퍼 목사는 선포한다.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 중에도 믿음을 유지하고 견디어 나가는 그들의 모습은 많은 것을 세상에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3면으로 계속)

사 고

‘2016년 세계한인교회 주소록’ 배포

본지가 발행한 '2016년 세계한인교회 주소록'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 배부 장소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교회에서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우송해 드립니다. (우송료 별도)



지역별 배부장소

▶ 뉴욕, 뉴저지 지역

한국서적 (718)762-1200
할렐루야 기독백화점 (718)762-0011
할렐루야 기독백화점(NJ) (201)373-0029

▶ 서부지역

기독교서적센터 (323)737-7699
도르가기독교서점(OC) (714)636-7430
생명의말씀사(OC) (714)530-2211
복음사(OC) (562)865-4949
두란노서적 (213)382-5400
조이기독백화점 (213)380-8793

▶ 기타지역

커테컷 하트포드 제일장로교회 (860)643-4738
일리노이 시카고기독교방송국 (847)583-0191
메릴랜드 지구촌교회 (301)460-1656
버지니아 주예수교회 (804)560-7500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215)542-0288
텍사스카운티장로교회 (215)945-1512
노스캐롤라이나 전기현회개사 (704)332-5656
북가주한인기독교티비 방송국 (408)433-0001
조지아 아틀란타생명의말씀사 서점 (678)957-1021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NY사무실 (718)886-4400
LA사무실 (323)665-0009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 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 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 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2016대선, Values voters 혁명 여전 할까? 2면



아이에게 소중한 기억 만들어 준다! 3면



고난의 신학: 용기에 대한 묵상 이승현 박사 7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8면



선교의 창 송종록 목사 13면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 40회 총회 소집 공고 및 등록안내

The Preparation Committee for The 40th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총대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제40회 총회를 소집 공고하오며 총회에 참석하시는 총대를 위한 호텔 예약 일정과 등록에 대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총회일시: 주후 2016년 5월 17일(화) - 5월 20일(금) (3박 4일)
- 2. 총회장소: Crowne Plaza Hotel (www.crowneplaza.com/cherryhill) 2349 Marlton Pike West, Cherry Hill, NJ 08002 (Tel:856-665-6666)
- 3. 숙박비: 총회 기간의 숙박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는미화(USDollar)입니다.

| 객실구분 | 등록마감일 및 참가비 | | |
|-----------------|--------------|--------------|--------------|
| | 1차(2월 15일까지) | 2차(3월 15일까지) | 3차(4월 15일까지) |
| 2인1실(1인당) | \$ 390 | \$ 435 | \$ 475 |
| 1인1실 | \$ 710 | \$ 750 | \$ 790 |
| 부부 | \$ 770 | \$ 850 | \$ 930 |
| 원로/공로 목사(2인 1실) | \$ 350 | \$ 390 | \$ 430 |
| (부부) | \$ 690 | \$ 740 | \$ 790 |

* 현지 선교사와 영어 노회원에 대해서는 2인 1실에 한해서 50% 할인함.

- 1) 개인 숙박: 개인적으로 숙소를 정하시고 총회에 참석하시는 분은 등록비 \$150을 납부하셔야 하며, 호텔에서 식사하실 경우에는 추가로 식비 \$200을 납부하거나 식권을 구입하여 필요에 따라 사용하셔야 합니다.
- 2) 총회에 하루 일찍 오실 분이나 폐회 후 하루 늦게 가실 분은 미리 알려 주십시오.

- 4. 등록 및 송금 안내: 등록 신청서와 송금은 아래의 주소로 check 혹은 money order로 보내 주십시오. (미국 외에서 등록하시는 분은 US money order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취인 (payable to) : KAPC-PHILA
* 주소 : Rev. Hee Kwon Jeong (정희권 목사)
204 Lincoln Drive West Ambler, PA 19002
(215) 407-3898 (Cell)

- 5. 교통안내: 총회 준비위원회에서 다수의 차량을 배차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원활한 차량 운영을 위해 도착 공항과 도착 시간 및 항공편을 미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장소가 필라델피아 인근에 있는 관계로 총회에 참석하시는 총대께서는 필라델피아 국제공항(PHL)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6. 접수: 첫째날(5월 17일 화) 접수는 오후 2시부터, 저녁 식사는 오후 6시부터, 그리고 교회 예배는 오후 8시에 드립니다. (1) 등록 마감일(4월 15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호텔 숙박은 준비위원회에서 보장해 드릴 수 없습니다. (2) 등록하신 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때에는 호텔과의 계약상 등록비는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 7. 기타: (1) 영어 노회 총대를 위하여 동시 통역 시설이 준비됩니다. (2) 문의 사항이나 도움을 청하실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준비 위원회에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 호텔: 이재철 목사 (215) 833-8070, hopeljc@gmail.com
- 관광: 이병은 목사 (215) 852-1723, hope2c@hotmail.com
- 기타: 최해근 목사 (267) 471-7777, hankschoi@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 김영수 목사 서기 조용철 목사
총회준비위원회 위원장 전동진 목사 서기 최해근 목사



시론

낮은 곳의 나의 인품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최소율의 법칙(Law of Minimum)이라는 것이 있다. 어떤 사람은 최소량의 법칙, 혹은 최소양분율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독일의 화학자인 리비히(Justus von Liebig)에 의해 처음 주장되어서 '리비히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수량(數量)은 다른 영양소의 존재량과 상관없이 제한요인(limiting factor)으로 작용하는 성분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다시 말해서 식물이 정상적인 생육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양분이 적당한 비율로 공급되어야 하는데 이들 양분 중 어떤 한 가지 성분이 부족하면 그 식물의 생육은 그 부족 성분량에 의해 지배되고 다른 다양으로 존재하는 양분이 제아무리 많아도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식물의 성장 3대 요소는 질소와 인산과 칼리이다. 만약 어떤 식물이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다른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 하나의 부족한 부분까지만 자라고 더 이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른 두 가지가 넉넉하게 충족되어도 제한요인인 그 이상은 성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예를 들어 어떤 교회의 어떤 형제는 믿음이 좋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재능도 있고 봉사도 잘 한다고 하자. 또한 남에게 베풀기도 잘한다. 사실 이런 면들을 두루 갖춘 사람은 교회 안에서 그리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형제에게 유일한 단점이 있다면 바로 열기가 결핍하면 화를 낸다. 시도 때도 없이 제 성질을 못 참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폭발한다. 그렇다 보면 바로 그 열기 때문에 쌓은 공, 얻은 인심을 다 잃어버린다. 그 육하는 성격 때문에 항상 베풀어 주면서도 마음을 얻지 못하고 섬겨 주면서도 무시를 당할 수 있다. 또한 그 성격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하기를 꺼린다. 어떤가? 최소율이 적용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최소율의 법칙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이 법칙에는 세 가지 불행한 법칙들이 내재되어 있다.

첫째는 낮은 한계의 법칙이다. 그릇이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해도 중간에 못에 의해 구멍이 뚫려버렸다면 그 못 구멍을 낸 곳까지만 물이 찬다. 그 구멍을 통해 물이 줄줄 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다르지 않다. 아무리 축복을 가득 차게 채워준다 해도 축복을 쏟아버리는 구멍이 있다면 그 이상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물질에 약하다. 그러면 그 인색한 마음 때문에 모든 축복이 새나가 버린다. 이성에 약한 사람, 명예욕에 무너져 버리는 사람, 아무도 모르는 죄가 있는 사람 등등 그 모든 영적인 축복은 그 낮은 한계로 인해 새나가 버리고 만다. 둘째는 설익은 밥의 법칙이다. 김이 샌다는 말이 있다. 김이 새면 밥이 설익고 영 맛이 없어지고 먹기 힘들다. 마찬가지로 다 좋은데 말을 함부로 한다든가, 셈이 흐리다든가 하면 맛이 없는 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은 성도가 되고 만다. 이 법칙에 의하면 이 사람은 탁월해지기 어렵다. 2%가 부족한 사람, 다 좋은데 디테일에는 약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셋째는 못허버린 재능의 법칙이다. 다른 강점이 아무리 많아도 그 약점 하나 때문에 나머지가 다 묻힌다. 있어야 할 세 가지 요소 중에 단 하나만 없어도 식물이 성장 자체를 중단하는 것처럼 열기 하나로, 거짓말 하나로, 교만한 태도 하나로 그 가까운 재능과 은사가 외면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다방면으로 탁월하다. 그런데 성실한 태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지만 다가갔던 사람들은 그의 불성실함에 실망하고 뒤돌아선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지금 적막감이 감돈다.

사순절은 자기를 돌아보기에 좋은 절기이다. 이 절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걸으셨던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많은 유익이 있다. 항상 말씀과 기도도 힘써야 하지만 특히 사순절을 맞아 다른 이들을 탓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심각히 돌아보면서 더욱 영성과 인격을 키우는 데에 집중하도록 노력한다면 영적인 많은 성장이 있을 것이다. 나도 나 자신을 돌아보니 내 삶의 그릇에 못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것을 깨닫는다. 김이 새고 있는 것도 발견했다. 그래서 삶과 사역에 누수(漏水)가 여기저기에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이 뚫린 구멍들을 막아주셨기에 망정이지 정말 형편없는 내 자신에 안 타까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이 사순절에 더 이상 위로만 쌓고 채우려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낮은 곳의 나의 인품을 다져보고 기본적인 품격을 더 높이기를 다짐해 본다. 사순절을 의미하는 라틴어(Lent)는 봄을 의미한다. 봄에 나는 새싹처럼 부활의 감격을 사모하여 스스로에게 고통을 가하면서 자신을 성찰하려는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된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요일3:3).

2016대선, Values voters 혁명 여전할까?

이코노미스트, 미 복음주의 진영에서 영향력 잃고 있는 기독교 우파 현실 보도

미국의 기독교 우파(Religious right)는 '미국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국가'이기에 미국이 외교적으로 강경한 정책을 펼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사회문화적으로는 낙태와 동성결혼에 반대하고 학교에서 종교적(기독교적) 가치를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중 강경한 부류는 아예 동성애 행위의 범죄화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과학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삭제하고 창조설을 넣자고 주장한다.

기독교 우파가 미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강세를 보이게 된 것은 조지 부시 대통령을 재선시키고 나서부터다. 당시 주요 언론에서는 후보의 능력과 비전보다는 도덕적 가치와 자질을 더 중시한 이들을 가리켜 '가치 지향적 유권자들(values voters)'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었을 정도로,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미국 선거에서 이들의 영향력을 가리켜 "종교적 합수"라고 지칭할 정도로, 강세를 보였다.

정치학자들은 무엇보다도 가치갈등 이슈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우파의 전략의 변화가 보수적 종교세력 뿐만 아니라 대중적 호소력을 획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를 감지한 공화당 지도부의

선거 전략에의 적극적인 활용이 기독교 우파와 공화당과의 정치적 연계를 더욱 분명하게 가져왔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독교 우파와 공화당과의 연계는 두 세력 모두에게 내부 분열의 씨앗을 내포했다.

실제로, '2016대선 예비 경선 과정에서 현재의 기독교 우파 세력은 공화당을 내부적으로 분열시키는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는 공화당 지도부에게 정치적 선택의 어려움을 주고 있다. 한마디로, 아무도 예상하지 않은 트럼프의 약진과 강경 보수의 상징이자 아웃사이더인 크루즈의 부상 앞에서, 대안이라 할 수 있는 루비오가 아직까지는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에서 복음주의적 크리스천은 단지 기독교 우파 또는 종교적 우파만이 아닌 다양한 신학적 전통과 노선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한다(The least of these: Even evangelical Christians are not uniformly right-wing).

1980년대부터 미 대선의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미국 유권자의 30%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로널드 레이건이나 조지 부시의 당선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 '복음주의 기독교인'의 표심을 누가 얻느냐 하는 것이다.

2012년 공화당 대선후보 지명전은 이 점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다. 유력 후보이며 엄



의 뜻과 부합하는지를 의심하는 기독교인들도 분명 있다는 것이다.

결국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도 "종교적 우파(religious right)"가 반드시 "종교적으로 옳은 것(religiously right)"이 아니며, 정치가 아닌 새로운 대안 즉 교육, 의료 복지의 확장 운동을 벌이고 있다.

2009년, US뉴스&월드리포트

복음주의, 오바마 집권 이후 빈곤·에이즈퇴치 등 사회적 쟁점 집중 "적 아니면 동지" 극단적 강경 입장 선회...종교적 합수 발휘 미지수

청년 선거 자금을 모은 롬니가 이들 복음주의의 기독교인의 표심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서 어느 때보다 길고 지루한 레이스를 펼쳤다. 샌토럼은 낙태와 동성애를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가족의 가치'를 앞세웠고, 이것이 무명에서 가까웠던 그가 남부에서 기독교 롬니를 끈질기게 괴롭힌 동력이 됐다.

정상적인 유권자라면 당연히 해당 후보의 능력과 비전에 관심을 가질 법도 하지만, 기독교 보수층 유권자들은 종교적 열정·하나님·신념·애국심·가족·공동체·도덕성·형평성 같은 일상적인 가치치뿐 아니라, 낙태 반대와 총기 소유 규제 반대, 동성결혼 반대, 감세 등 기존의 보수적 가치에 대한 후보의 견해를 더 중시한다. 후보의 자질이 아무리 출중해도 국가 미래에 대한 비전에서 이런 가치들을 공유하지 않는 한 이들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복음주의적 크리스천과 기독교 우익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바로 기존 정치권과의 연계로, 기독교 우익은 공화당과 손을

잡고, 지금은 '티 파티 운동'으로 공화당 안에서 기독교 우익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테드 크루즈처럼 '크리스천들을 공략하면 내가 대통령 이 될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을 대선에 출마한 정치인이 있을 정도로, 미국의 교회는 정치적 우파의 텃밭으로 여겨질 정도였다. 한때 진보 성향이었던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레이건 정부 하에서 TV 출연으로 유명세를 탄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 아래 공화당 지지로 돌아섰고, 이후 백인 개신교도는 물론이고 백인 가톨릭 신자들까지 상당수가 공화당 지지세력이 됐다.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단순한 종교가 유일한 동력이었던 것은 아니다. 계급과 인종의 문제가 한 축을 담당했다. 그러나 종교의 영향은 분명 변화의 원인이었다. 낙태나 동성애 같은 문제에, 경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종교가 영향을 미쳤다. 기독교인에게 자립이란 구원의 필연적 결과이고, 부는 성스러운 축복이며, 큰 정부는 반대해야 할 존재이

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개개인의 의무지만, 정부가 나서서 간섭할 일은 아니라고 여겼다.

하지만 모든 기독교 공동체가 이런 것은 아니다. 미국 기독교인에 대한 인식이 고정돼 있는 이유는 미디어 탓이라는 의견도 있다. 언론계 종사자들이 대부분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악마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현실에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멕시코 국경에 담을 쌓는 일이나 건강 보험의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역시 미국 복음주의가 과거 정치적 야단에 깊이 관여해 강경한 보수의 목소리를 내던 기독교 우파의 이미지를 탈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The Christian Right Campaigns to Soften Its Image).

동 매체는 최근 10년간의 경향을 분석,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사회적으로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도 기독교 우파와는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있다.

(10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정영춘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포)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포)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1986-2016 30th Anniversary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 M.Div, MBA
-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

- Exchange visitor Professor and Research Scholar Programs 교환교수, 연구원, 선교사
- Exchange visitor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Internship Programs 대학생 교환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J비자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jvisa@midwest.edu)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입니다.

미국 대학 학력인정기관 Accreditation (CHEA) 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USED) OPE ID: 03528300, www.ope.ed.gov/accredita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4751
E-mail: wdc@midwest.edu

아이에게 소중한 기억 만들어 준다!

NYT,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잠자리 동화책의 유익 연구 결과 통해 보도

지난해 미국 소아과학회는 새로운 의뢰지침을 발표했다. 내용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읽기, 쓰기를 비롯한 언어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소아과 의사로 하여금 부모들에게 아주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동화책을 많이 읽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강조하라는 뜻이다. 책을 소리내 읽어주며 키운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 사이의 언어 발달 능력과 학업 성취도 차이를 조사한 여러 연구 결과가 근거로 인용됐다.

책을 읽어주는 것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연구는 많이 있었지만, 왜, 정확히 어떻게 아이의 뇌가 발달하고 이것이 훗날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그 경로를 밝혀낸 연구는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최근 이와 관련해 우리에게 이전에 몰랐던 내용을 밝혀준 연구가 있어, 소개한다(Bed Time Stories for Young Brains).

이번 달 '미국 소아과' 지에 실린 한 연구는 3-5세 어린이가 각각의 연령대에 맞는 수준의 동화책을 읽어주는 걸 들을 때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 장치를 이용해 촬영했다. 해당 어린이에게 원래 집에서 동화책을 읽어줬는지 여부에 따라 반응이 판이하게 달랐다. 즉, 집에서 부모가 동화책을 많이 읽어준다고 한 아이의 좌뇌 쪽 정수리-관자놀이-후두부의 피질이 훨씬 활발하게 반응을 했다.

“이 영역은 청각, 시각을 비롯



책 읽어주기, 만화책 동영상보다 시각 정보 처리능력 활성화 말하기에서 읽기, 쓰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엄청난 영향 미쳐

한 여러 자극을 통해 언어 전 정보를 종합하고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신시내티 어린이병원의 허튼(John S. Hutton) 박사의 말이다.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어린이가 책을 읽을 때 가장 활발하게 기능하는 뇌의 영역도 같은 곳인데, 허튼 박사는 더 어린 아이가 누군가 책을 읽어주는 걸 들을 때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도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집에서 동화책을 많이 읽힌 어린이들은 뇌에서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이 특히 활성화됐다.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읽어주는 음성을 듣고만 있는데도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영역이 활성화된 걸 두고 허튼 박사는 상상력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아이들은 마음속으로 이야기

를 시각화하면서 들읍시다. 예를 들어 '개구리가 통나무를 폴짝 뛰어넘었어요'라는 문장을 들었을 때 아이들은 개구리와 통나무를 각각 그려낸 뒤 이를 뛰어넘는 모습이 어떻게 상상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동화책을 귀로 듣고, 같이 책 속의 그림을 손으로 가리키며 눈으로 본 아이들의 뇌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더 잘 그려냈다. 나중에 글을 읽고 이미지를 정확히 떠올리거나 줄거리를 파악하는 능력도 더 우수했다.

“(시각화하는 상상력은) 사물이나 등장인물의 행동이 어떤 것 일지를 이해하는 능력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나중에 그림이 없이 글자만 있는 책을 읽을 때 독해력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잘 발달된 아이는 나중에 독서 습관

을 들이기도 쉽습니다.” 허튼 박사는 또한 책을 읽어주는 것이 만화책이나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발달시키기 어려운 창의력을 키워준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면 아이는 머릿속에서 이야기를 상상해 그려볼 필요가 없죠. 이리저리 상상의 나래를 펼칠 틈도 없이 아이는 완제품을 납득 받아먹게 됩니다.”

또 다른 연구는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과 그냥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아이들의 언어 능력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이다. 이번 달 '심리과학(Psychological Science)'지에는 동화책에 포함된 어휘와 일상적인 대화에서 사용하는 어휘를 비교한 연구가 실렸다. 연구를 이끈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주립대학의 문탁

(Jessica Montag)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동화책에는 평소에는 하는 대화 속에서는 좀처럼 나오지 않을 훨씬 다양한 어휘, 단어가 담겨 있어요. 책이 아니면 결코 접할 길이 없는 단어들 있다는 뜻이죠.”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건 아이들이 다양한 어휘에 노출되는 동시에 여러 단어, 어휘와 관련된 시각적 이미지를 상상하는 훈련을 시키는 효과가 있다. 아이들은 간단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어휘로 다양하게 표현하는 법도 익히게 된다.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Reach Out and Read” 캠페인은 올해에만 5,600여 개 프로그램을 통해 680만 권의 동화책을 나눠주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한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책을 더 많이 읽어줬고, 아이들의 어휘력도 덩달아 향상됐다. 어찌 보면 상식적인, 뻔 한 결과지만 연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되는 효과는 상당하다.

“어려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게 여러 모로 좋은 일이라는 건 사실 다들 잘알아요. 그런데

책을 꾸준히 읽어주는 게 특히 아이들이 나중에 언어를 배울 때 말하기에서 읽기, 쓰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부모님들에게 꼭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모두가 아는 사실을 하나 더 언급하고 마무리하겠다.

침대에서 동화책을 읽어준 시간만 부모에게나 자식에게나 아릅다운 추억으로 간직된 경우가 많다. 사랑스런 눈빛을 나누며 얼굴을 맞대고, 혹은 엄마나 아빠 품에 꼭 안겨서 이야기를 듣다 스스로 잠들었던 기억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다. 아이들은 그 시간이 너무 좋아 같은 이야기를 수백 번, 수천 번이고 또 들려달라고 하고, 부모는 나중에 갑자기 빛바랜 동화책 표지만 보고도 그때가 생각나 눈물이 핑 돌기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고난주간을 맞으며 이 한마디가 성령 안에서 모든 크리스천의 가슴을 울리고 회개하게 하고 사랑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한다.



박중순 목사 (중신교회 원로)

원로칼럼

이런 목회를 하고 싶다(중)

열린 목회

필자는 열린예배라는 용어 자체를 싫어한다. 더욱이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 팝 수준의 가스펠을 열창하고 목사도 청바지에 반팔 티를 입고 그러면서 이것이 열린예배라고 말하는 그 행위가 싫다. 지금껏 대통령 면담을 위해 청와대를 방문하는 사람들 가운데 반바지에 반팔 티셔츠를 입고 가는 사람을 본 일이 없다. 젊은 이들과의 소통을 위해, 그들을 예배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러나 북장이나 노래가 예배는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드리는 것이며 경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부하고 타성에 빠진 예배는 회복해야 한다. 예배자의 참여 없이 인도자의 주도 일변도로 진행되는 예배라면 진정성 있는 예배도 아니고 함께 드리는 예배일 수 없다.

목회의 경우는 어떤가? 중세교회의 병폐는 성경도, 예전도, 사제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마치 폐쇄회로처리 교인은 관망자일 뿐 그 어떤 행위도 제한적이었다. 이런 병폐가 깊숙이 뿌리 내리면서 교권의 성곽을 쌓기 시작했고, 교황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는 과오를 범하게 되었다.

목회는 목회자의 전문분야다. 전문 사역을 위임 받아 교회를 섬기고 교인을 이끄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신학 과정을 이수하고 공기구인 노회나 총회의 인증을 받아 목사가 된다. 그렇다고 목회자만의 점유물이 되어선 안된다. 사회변동 속도가 빠르고 다양화로 치닫하는 현대 목회를 목사 혼자 감당하는 것은 버겁고 힘들다. 목회는 교회구성원들의 요구를 이해하고 수용할 때 날개를 펴게 된다. 그리고 그들의 도움과 지원이 성립될 때 바람직한 목회현장을 일구게 된다. 그런데 ‘목회는 내꺼야, 간섭하지 마, 건드리지 마, 내가 뭘 알아?’라며 독단을 일삼았던 목회라면 빨리 되돌리는 게 좋다.

다시 목회를 한다면 먼저 마음을 열고 교회 문을 열고 드넓은 목회 광장에서 함께 손잡고 달리고 뛰고 싶다. 모든 사람을 목회 파트너와 도우미로 만들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열고 그 소리들을 뇌리에 새기고 가슴에 담고 싶다.

이성계와 함께 이시 조선 창건에 동참한 정도전, 어느 날 이성계가 정도전에게 물었다. “왕이 할 일은 무엇인가?” 정도전의 답은 “듣는 것, 잡는 것, 품는 것”이었다. 필자는 이 짧막한 세 마디 속에서 목회자가 경청해야 할 메시지를 듣는다.

들어주는 목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신중하고 친근한 자세로 경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성으로 듣고 시계를 들여다보고 하품하고 저 혼자 지껄이는 사람이 있다. 후자의 경우 인간관계도 잘 안되고 목회도 흔들린다. 경청 목회라야 한다.

잡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목회자의 감정이나 입장은 전혀 상관하지 않은 채 떠벌리는 사람, 감정을 박박 긁어대는 사람,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진리인 양 강변하는 사람, 목사 건드리는 것으로는 한이 풀리지 않다 아내, 자녀, 사돈네까지 찌는 사람, 별별 사람이 많고 많다. 그래도 잡는 것이 왕도이며 목양 정도다. 인내로 구원을 이룬다는 말씀이 떠오른다. 동시에 인내로 목회를 이룬다는 깨달음도 떠오른다.

품는 것, 이것은 더 어렵다. 듣고 잡는 것은 내 안의 자심과 결단으로 가능하다. 내 안의 문제이며 내 정신세계의 문제다. 그러나 견안한 것은 다른 사람을 그것도 고슴도치처럼 가시투성이인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품는 것이어서 더 힘들다. 그러나 품지 못하면 타인이 되고 적이 되고 만다. 평생 목회를 되돌아보면 이 부분이 약했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헤쳐 나온 지난날이 부끄럽기 짝이 없다. 다시 목회를 한다면 다 들어주고 쓰리고 아파도 참고 온 동네를 다 품고 싶다. 그리하여 지혜로운 바보가 되고 싶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실적 1위를 달리던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2009년에 발생한 급발진 사고로 시장점유율이 추락했다. 총 8백만 대 이상의 리콜에 손해액은 1억엔(10만 달러) 정도였다. 사건이 그렇게 된 원인은 ‘문제가 있다, 문제가 발견됐다’라는 고객들의 소리를 외면했기 때문에 큰 사건으로 폭발했다는 것이다.

듣고, 참고, 품고! 이런 목회를 하고 싶다.

iamcspark@hanmail.net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다!”

(1면에서 계속)

즉, 삶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나 죽음에 앞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한다는 복음의 진리를

구체적으로 세상에 드러내 보여준다. 얼마나 생생한 십자가의 선포인가! 이 진리는 크리스천이 세상에 안겨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다!

세상은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이 선물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세상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든 없든 우리는 그러한 선물을 세상에 안겨 준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고난주간을 맞으며 이 한마디가 성령 안에서 모든 크리스천의 가슴을 울리고 회개하게 하고 사랑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한다.

담임목사님 청빙

북 캘리포니아주 치코 (Chico)시에 위치한 치코 한인 장로 교회 (Chico Korean Presbyterian Church)는 교파에 관계없이 목회의 열정과 비전을 가지신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자 격

- 1. 정규 신학대학원 (M.Div.)을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 2. 영주권 또는 시민권 소지하신 분 (또는 미국에서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신 분)
- 3. 이중 언어 가능하신 분 (한국어와 영어).

제출 서류

- 1. 이력서 1부.
- 2. 목회 비전 및 가족 소개서 (가족 사진 포함).
- 3. 목사 안수 (안수예정) 증명서, 졸업 (졸업예정) 증명서 각 1부.
- 4. 목회자 추천서 1통.
- 5. 가능하시면 설교 CD 또는 DVD 2 회분.

참고 사항

- 1.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빙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2. 선임된 분에 한해 개별 통지합니다.
- 3. 서류 마감: 선임될 때까지.
- 4. 서류 제출처: Attn: 청빙위원회 / Chico Korean Presbyterian Church 1505 Arbutus Ave. Chico, CA 95928
- 5. 문의: 청빙위원장 (전 해동장로) 전화: (530) 513-3499 E-mail: junhd45@yahoo.com

치코 한인 장로 교회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 | | | |
|----------|-----------------|-------|------------|-------|
| ★ 1년 구독료 | 미국 | \$100 | 유럽 | \$190 |
| | 캐나다 | \$110 | 남미 | \$190 |
| | 한국및 동남아시아 | \$190 | 아프리카 | \$190 |

| | | | |
|--|---|------------------------------|--|
| 신청 유형 |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 | |
|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 한글 : | 목사 <input type="checkbox"/> | |
| | 영어 : |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 |
| 배달 주소 | | | |
| 전화/Fax | () |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꼭 적어 주십시오. | | | |
| 받는분 이름 | 한글 | 영어 | |
| 전화번호/Fax | () | () | |
| 배달 주소 | | | |
| 교회/기관명 | | | |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미국 종교 뉴스

종교 자유법이 잘못 사용되어지다

Bill Would Band State Travel Based on Religious Freedom Laws.

캘리포니아 주에서 또 이해하지 못할 법안이 동성애자/성전환자 후원단체를 통해서 주 의회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종교 자유 보호법" 항목에서 그 기초를 두는데 "종교 자유 보호법"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들이 영통한 법안을 만든 것이다.

이 새 법안은 주민발의안 1887로, 이것은 북가주의 쉐리던 벨리 지역의 주 하원인 로우(Low)씨가 주의회에 상정한 내용이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의원들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에게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를 거부하는 주(州)로 여행하는데 여행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법안이다. 같은 맥락에서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들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는 주는 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그런 주에서 주최하는 컨퍼런스나 컨벤션에 참석하면 모든 비용을 지불한다

는 것이다.

이것은 다분히 이중성을 갖고 있고, 이 법안은 비차별법안을 약화시키는 법안이다. 이 법안 때문에 지난 수년 동안 동성애 우호그룹(LGBT Rights)과 종교자유회복법안(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이 계속 충돌해왔다. 현재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21개 주가 이 문제로 공방을 펴고 있다.

현 법안은 주의회 의원들과 스태프들이 아리조나, 플로리다 일리노이, 텍사스, 펜실베이니아와 버지니아와 같은 주에서 열리는 컨벤션에 참석하는 모든 비용은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이 법안은 주의회 의원들이나 스태프들의 컨벤션 참석을 막지는 않으나 여행비용은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태평양법률협회는 이 법안을 전

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본 협회 회장 브래드 대쿠스 박사는 "주민발의안 AB1887은 위헌적이고, 거만한 행동이고,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이다"라고 말했다. 물론 우리들이 주의회의 의원들이나 스태프들의 여행에 대하여 주의 깊게 살펴서 세금을 지불할 주민들의 예산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방법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애국심 말살시키려는 샌디에고 시 "건국 아버지"란 말 사용 금지시켜

미국 공휴일 가운데, "대통령의 날, President's Day"가 있다. 그런데 샌디에고 시에서는 "대통령의 날"에 시청에서 일을 하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건국의 아버지"란 말 사용을 금지시켰다.

지난달 9일 보도에 따르면 샌디에고 시에서 새로 수정한 직원 요람에 구두로나 서면으로 시청 직원들에게 통보해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 이것은 시청 직원 요람의 "무(無)편견 언어, Bias-Free Language" 부분 아래 "the common man-공공의 남성," "manmade-

다"라고 말했다.

주의원 로우(Low)씨는 주민발의안 AB1888을 동시에 제출했는데, 이것은 대학생들의 학비보조금을 없애는 법안이고, 특별히 동성애자/성전환자(LGBT)들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크리스천 대학, 대학원들의 학비보조금을 전면 거부하는 주민발의안을 주의회에 상정한 사람이다.

남성이 만든," "man up, 남성들 위주" 등의 단어나 문장들이 성별의 분리를 조성한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건국의 아버지-Founding Fathers"란 말을 그저 "Founder-창립자"등으로 변경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시청 관계자는 모든 직원들에게 성별 차별이 있는 모든 단어나 문장들을 연구조사해서 변경시키도록 했다.

이 일에 대해 본 협회 샌디에고 시장인 케빈 폴코너(Kevin Faul-

coner)에게 이런 규제들을 즉각 폐지하라고 공식 서안을 보냈다. 본 협회의 상임 변호사인 매튜 맥게이놀즈(Matthew MaReynolds)는 적어도 미국 고등법원과 하급법원에서 1,500가 넘는 소송으로 "건국의 아버지"란 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직접적인 판결을 내린바 있다는 것을 그의 공문서신을 통해서 통보했다.

본 협회 회장 브래드 대쿠스 박사는 "우리들이 지금 자유를 헌법으로 누릴 수 있도록 만든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샌디에고 시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건국의 아버지"란 말 사용을 금하는 것은 매우 공격적이고 지킬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쿠스 박사는 "지금 당장 샌디에고시의 시장은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시청 직원 및 공무원들에게 규제 때문에 처벌 받는 것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했고, 또한 "이러한 규정을 세우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본 협회에서는 이러한 애국심 때문에 처벌을 받는 시청 직원이나 공무원들에게 무상으로 소송을 담당할 것을 약속한다. 샌디에

고 시에서는 2월 11일자로 본 협회 공식 서안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샌디에고 시에서는 시청 직원이나 공무원들이 "건국의 아버지"란 문장을 사용하는 법령을 폐지했다. 이에 본 태평양법률협회 상임 변호사인 Matthew MaReynolds가 샌디에고 시에 공식 서안을 보낸 결과로 시에서 그들의 규정을 폐지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샌디에고 시에서는 "성별 편견, gender biased"을 인용하고, 이들의 직원 요람에 직원들에게 시청부 정책임을 밝혀두었다.

본 협회 회장 브래드 대쿠스 박사는 "우리는 샌디에고 시가 이런 불합리화 하고 망령된 법령을 철회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를 위해서 희생을 한 건국의 아버지들의 애국심을 존경하고 마음에 거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망령된 법령은 매우 무례하고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본 협회는 계속해서 샌디에고 시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다른 문제들을 만들어낼지 지켜볼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태평양법률협회 rju@pji.org

푸 / 른 / 초 / 장

장성춘 목사
(안암제일교회 원로)



불의를 보고 탄식할 줄 모르면 진정한 애국자가 아니다. 성경 역사를 보아도 꼭 불의한 왕이 죄악을 범할 때는 의로운 선지자가 나와서 경고하고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다.

사울 왕이 계속 교만에 빠져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서 책망을 했다(삼상 15장). 다윗 왕이 범죄 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했다(삼하12:9). 솔로몬 왕이 범죄 하였을 때 아히야 선지자가 책망을 했다(왕상11:29). 아합 왕이 우상을 섬기고 폭정을 할 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서 경고를 했다(왕상 18:1). 히스기야 왕 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도와주었다(왕하19:1-7). 니느웨 성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요나 선지자를 보내어 경고했다(욘3장).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의 범죄함을 보고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하고 순교당했다(마14:3).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타락한 백성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했다(마3:7; 12:34). 하나님은 자기 선

지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신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이와 같으니

예수님은 공생애 중 세 번 우셨다. 나사로의 죽을 앞에서 인생의 나약

예수님의 눈물과 분노 (누가복음 19장 40-48절)

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겔33:7). 만약 경고하지 않으면 그 파수꾼을 네게서 찾을 것이라고 했다(겔3:17-21).

오늘날의 목사에게는 제사장적인 책임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기도 해야 하지만 타락하고 잘못하는 정부와 백성을 책망할 책임도 주어진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병어리개"라고 하였다(사56:10).

1. 예수님의 눈물(41-44절)

함을 보고 우셨고(요11:35). 겹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우셨으며(마26:37), 오늘 본문에는 장차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다.

(1) 예수님의 눈물은 주후 70년에 이루어졌다.

"우시며"(에크라우센)의 원 뜻은 슬프고 비통함을 뜻한다. 히브리어 5:7 "심한 통곡과 눈물"이라고 되어 있다. 예수님이 내다본 예루살렘 성은 주후 70년 후에 글자 그대로 이

루어졌다. 주후 70년 4월 로마 장군 디도(Titus)에 의해 9월 8일까지 5개월 동안 포위되어 있었다.

포위당한 예루살렘 거민들은 외부와의 연락이 끊어지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다. 견디기 힘든 부인들이 애들을 삶아 먹는 일까지 일어났다. 이때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나 되었고, 노예로 잡혀간 사람이 9만7천 명이었다고 한다. 82년에 걸쳐 금장식으로 지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은 한 병사의 방화로 불에 타버리고 말았다.

2. 예수님의 성전 숙청(45-46절)

유월절이 되면 거의 25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

(1) 당시 성전 규모는 성전 전체를 "나오스"(naos)라고 불렀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었다. 성소 주변은 몇 개의 뜰로 되어 있었다. 이방인의 뜰, 누구가 들어갈 수 있는 곳, 여인의 뜰, 이스라엘 여인들만 들어갔다. 이스라엘의

절의 웃돈을 더 받았다. 이 돈은 성전 유지비로 일부 사용되기도 하면서 대제사장 안나스(Annas)의 특매점이 되었다.

비둘기파는 행위, 비둘기는 주로 생리 중이거나 출산한 여인, 문둥병 환자들이 바치는 제물이었다(레 12:8; 14:22; 15:14, 29). 성전 밖에서 살 수 있는 것을 매점에서 사게 하고 돈은 15배나 더 받았다(Wm. Barclay, "마태복음 주석", p. 349 참조). 그리고 임시 매점이 점점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요2:13-17). 그래서 예수님의 분노를 샀다. 예수님은 돈 바꾸기를 다 물어버리고, 비둘기를 날려버리고, 소와 양 떼를 내쫓았다.

3. 성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47-48절)

예수님은 이렇게 엄청난 행위를 행하고서도 그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들의 두목(장로)의 표적이 되었고 현상 불은 사람이 되었지만 워낙 따르는 사람이 많아서 감히 손을 댈 수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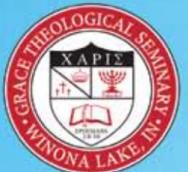
예수님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을 볼 때는 울지 않으실까? 그리고 우리들의 예배는 경건한 가반 성해 보면서 예배에 임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다.

를, 이것을 "니카놀"(nicanor)이라고 불렀다. 제사장의 뜰이 있었고 거기에 모든 기구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2) 예수님이 분노한 이유 이 사건은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났다.

돈을 바꾸는 데서 부정이 있었다. 모든 유대 남자는 반 세계의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이는 노동자의 2일 노임이다. 그런데 임시 환전소에서 지정된 화폐로 바뀌주는 대신 갑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On Campus Courses 2016 봄학기 강의 안내

March 7-11(3월 7 -11일)
DI 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Daniel Lute

Mar 14-18 (3월 14-18일)
DI 8140 Cultural Anthropology in Biblical Perspective (성경적 관점에서의 문화인류학)
For D.Ics. Students (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er

Feb 1-5(2월 1-5일)
DI 8500 Discerning God's Will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homas Staller

Online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Jan 11-Mar 4 (1월 11일-3월 4일)
DI 8160 Trends in Church Planting and Growth (교회개척과 성장)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er,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 Seoul, Korea

Feb 15-19(2월 15- 19일)
DI 8080 Modern Trends in Global Mission(현대선교동향)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Nelson Jennings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책임, 거룩한 투표” -기독교 유권자 정보 안내서 (하)

영어로 투표를 뜻하는 'vote'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선택의 정식적 표현”입니다. 투표권이 있는데도 그것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선택은 결코 표현되지 않은 선택, 보이지 않는 선택, 결국은 행사되지 않는 선택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선한 청지기”의 책임을 망속에 묻어두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보는 지도자의 자격 미국의 2016년도 대선후보들이 선거 유세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것도 최소한 2백만 명은 족히 되었을 많은 수의 사람들을 혼자서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백성들을 다스릴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모세는 신실한 장인 이드로를 통해 지도자 선출에 대한 위대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다음의 다섯 가지의 기준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1. 능력있는 자에게 투표하라 모세는 백성들을 다스릴 ‘능력있는 자’를 뽑았습니다. 히브리 원어에서 ‘말겨진 일을 완수할 만한 능력

니다. 만일,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아니오” 라면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될만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남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말하는지? 그가 정치적 경쟁자들을 사사로이 비방하거나 모욕하지는 않는지? 혹은, 경쟁자들과 뜻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을 향해, 그리고 그들에 대해 정중함을 잃지 않는 사람인지?

3.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투표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속은 꼭 지킨 전력이 있는지... 예를 들자면, 선거 전의 공약을 당선 후에도 지켰는지... 아니면 당선 된 후에는 이전의 공약들을 현실파처럼 버린 사람은 아닌지...

5. 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한 자에게 투표하라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는 재정적으로 타락했던 흔적이나 비난이 없어야 하며, 청렴해야 하고 뇌물받기를 싫어하며 거부하는 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 속하여 시민들을 섬기게 될 사람은 당연히 재정적인 것에 있어서의 부당함이나 타협 같

대통령선거,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 후보 분별하고 꼭 투표해야 후보는 능력, 인격, 하나님 경외, 신뢰성, 돈에 깨끗한 자여야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으로 여러 생각들을 갖고 자신들이 가진 기준에 의해서 분별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다스릴 지도자들에 대하여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기준을 말씀하시고, 그 기준을 요구하시지만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 여러 곳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정치 지도자들에 대하여 출애굽기 18장에서 확고한 자격 요건을 말씀하시며, 그것들을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미국의 역사를 볼 때도 출애굽기 18장의 조건들이 지도자를 뽑을 때 충족되었음을 알 수 있고요.

출애굽기 18장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하던 중, 장인 이드로를 만나 21절에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런 충고를 해줍니다.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재물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이를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전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출 18:21).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스린다는 것은, 그

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도자를 뽑고자 할 때, 그 사람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완수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인지에 대하여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는데 적합한 배경과 경험, 지식, 판단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는 헌법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원칙들을 충실히 지키기를 원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 나라의 최고의 법에 대한 존중이나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 yourself. 그리고 그 원칙들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칙들의 원리에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지?

2. 인격이 갖추어진 자에게 투표하라

능력이 있는 자(재력이 겸손한 자)에 대한 또 다른 의미에는 고상하고, 강하며,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자격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단기간이 아닌 그의 생애에 걸친 도덕성과 행동들에 대한 평가가 요구됩니다.

그가 개인적으로나 결혼생활, 가족 그리고 직장생활에 있어서 경건한 성품으로 살고 있는지? 본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물어야 할

면 공무를 집행하는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나오는 “경외”의 히브리어 의미는 존경과 경배, 최고의 권위에 있는 분(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경외심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나의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확고하게 경외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지? 아니면 그 경외함이 자신만의 주장인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익숙함이 있는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지?

4. 신뢰성이 있는 자에게 투표하라

“진실무망” 하다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의 뜻 안에는 진실되고 흔들리지 않으며, 신실하고, 충성되고, 믿을만하며 꾸준하고 안정적이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꾸준한지... 그 사람은 언제나 믿을만 한지... 그리고 그 사람은 진실된 말을 할 때 그 말로 인해 어떤 결말을 맞을지 상관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정말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는지, 아니면 시시각각으로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자주 그의 입장이 변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한 약

은 것을 경멸하는 사람이여야 하고 돈으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돈으로 매수되는 사람이어서는 안됩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투표자들의 선거 안내서를 이미 마련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대통령 후보들에 대하여 같은 견해를 갖고 있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사람이 만든 기준이 아닌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여 후보들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위와 같은 5가지에 100% 합한 자를 찾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역사를 볼 때 대통령 선거 때마다 위와 같은 성경적인 가장 높은 기준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적인 성품과 능력을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을 뽑아왔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 대통령 선거, 누가 위의 성경적 기준에 가장 근접한 사람인지 또한 자신의 가치관을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왔는지 잘 관찰하며 우리 모두가 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Tvnex.org 에 가시면, 후보자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정치적 전력을 조사한 결과들이 있으니 꼭 참조하시고 투표에 참여하세요.) sarahspring2009@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두고 온 조국을 걱정하며 기도하는 모 교회 권사입니다. 북한은 더 많은 핵과 생화학무기를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핵의 위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싶습니다. 기독교인은 핵을 사용하는데 대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요? -토랜스에서 정경숙 권사

A: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사용되는 무기는 대칭전력과 비대칭 전력으로 나뉩니다. 대칭전력이란 탱크, 전차, 군함, 전투기, 포 미사일, 총 등 실제 전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뜻합니다. 전쟁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무기라는 의미에서 재래식 전력 혹은 재래식 무기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재래식 전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지만 투자한 만큼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기에 대칭전력이라고 불립니다.

비대칭 전력 혹은 비대칭 무기는 핵무기, 탄도 미사일,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 등 대량살상과 기습공격, 게릴라전이 가능한 무기로 인명을 살상하는데 재래식 무기보다 월등한 위력을 발휘하는 무기입니다. 이 비대칭 무기는 실제로 사용하면 전 세계적인 비난과 지탄을 받게 되어 전쟁에서 사용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지만 비대칭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상당한 위협이 됩니다. 이

핵 사용하면 승자는 없고 모두 피해자

비대칭 무기는 핵무기(Atomic), 생물학(biological)무기, 화학무기(chemical) 로 주로 ABC라 불립니다. 핵폭탄 한 개가 투하되면 즉시 200만명이 죽을 수 있고 100만 명이상이 부상을 당합니다. 오늘날의 핵탄두는 과거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폭의 600-800배의 폭발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지만 만약 한반도에 핵전쟁이 나면 한반도 인구의 절반이상, 많게는 2/3가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핵이 사용되면 한반도는 그야말로 지옥이 되고 재앙이 되고 맙니다. 핵이 사용될 경우 열, 폭발, 바람, 폭풍, 직접적인 방사능으로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부상과 전염병(하수도가 파손되고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없기에) 그리고 첫 번째 겨울은 굶어죽거나 얼어 죽을 것입니다(가스전기의 공급이 끊어짐으로). 또 황폐된 지역을 덮고 있는 유독 연기는 많은 생존자를 독살할 뿐 아니라 빛을 완전히 차단해 버려서 지구는 빙하기 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암은 더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것입니다. 유전학적 결과와 생태학적 황폐화가 수십년 동안 계속되어 이후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됩니다.

핵을 사용하는 대학살에서는 무죄한 피가 흘러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인 양심은 무차별적 핵무기와 화학무기와 생물학적 무기의 사용을 부도덕한 것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핵전쟁은 절대대로 의로운 전쟁이 될 수 없습니다.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초프가 1985년 제네바에서 선언했듯이 “핵전쟁은 이길 수가 없으며 절대대로 해서는 안되는 전쟁이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승자는 없습니다. 다 피해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핵무기의 제거는 인류최대 공동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19세기에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운동이 일어나서 노예제도가 폐지된 것처럼 21세기는 인류를 대학살할 핵무기 폐지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해야 할 때입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www.rptse.com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특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학과

| | | | |
|-----|------|----|------------|
| 대학부 | 신학과 |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 | 선교학과 |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 | | | |
|--------|-----------|----|------------|
| 대학원 | 목회학석사 | 3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 | 기독교교육학 석사 |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 | 선교학 석사 |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 *여교역학과 | | 3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문의처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영춘 박사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네시아의 도호이(Dohoi)



도 호 이 족이 가진 다른 이름인 '오트다눔(Ot Danum)'은 "강의 상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다. 이들은 뿌리가 같은 신화를 가지고 있는 많은 다른 소수 그룹으로 이들은 동일한 언어의 서로 매우 유사한 방언들을 각기 사용한다. 오트다눔의 하위 그룹 중 4개 주요 민족은 필리핀 남서쪽 인도양

에 위치한 보르네오(Borneo) 섬에 거주한다. 그들은 멜라위(Melawi) 강 상류에서 바리토(Barito) 강 상류에 이르러까지 180마일에 해당하는 길게 뻗은 지역에 걸쳐있다. 그들의 기원에 대한 신화는 이렇다. 하늘에 있는 황금 팔랑카(palangka)와 제단에서 나온 두 명의 형제와 두 명의 자매가 있었는데, 그중 형제들은 카하얀(Kahayan) 강에 내려왔고 자매들은 바리토 강으로 내려왔다. 형제들은 사냥 중에 인간의 발자국을 발견하고 그 발자국을 따라다니다 자매를 만나게 돼 결혼해 한 커플은 카하얀으로 돌아왔고 결국

그 후손들이 오트다눔 종족으로 알려지게 됐다.

삶의 모습

오트다눔족은 '다약(Dayak)'으로 알려진 좀 더 큰 종족 그룹에 속한다. 다약이라는 말은 무슬림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을 지칭한다. 그들은 큰 강의 방둑을 따라 사는데, 그곳에서 쌀을 재배하기도 하고 숲에서 송진, 고무, 경질재목, 동물 가죽등과 같은 것을 채집하기도 한다.

집에서는 개, 돼지와 닭 등을 키우고 중요한 축제 때는 식용으로 소를 잡는다. 물소도 키우지만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기르는데 이는 물소들이 쉽게 야생적으로 변해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트다눔은 모자와 바구니, 매트를 엮어서 만드는 주산지로 유명하다. 농기구와 사냥

도구 또한 지역에서 만들어진다. 한 촌락은 대략 100-400명 가량으로 구성되며, 집들은 사각형 형태로 땅에서 6-15피트 정도 나무 기둥을 사용해 위로 띄워 세워진다. 각 촌락 주변의 땅(반지름 약 2마일 정도)은 촌락 공동 재산으로 여겨져 각 촌락민들은 자신의 땅을 팔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오직 같은 촌락사람에게 제한돼 있다. 5년 이상 개간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땅은 촌락 사람 중 누구라도 요청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오트다눔족 사이에서는 고종 사촌들끼리의 결혼이 권장된다. 부모모에 의해 결혼이 승낙될 때, 신랑의 가족은 신부의 가족에게 상징적인 선물을 준다. 두 번째 선물은 결혼을 발표할 때 주어진다. 결혼이 이루어진 후, 신부대가 지금 된다.

인도네시아의 열대 기후에서는

밝고 험명한 옷을 입어야한다. 허리가 있는 옷은 비공식적인 행사를 위해 가끔 입으며, 공식적인 행사의 경우에는 감아입는 치마(wrap-around skirts)를 입는다. 이웃과의 관계는 집단에 따라 다르지만, 같은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신앙

오트다눔 사람들은 정령숭배자들이다. 그들은 다신론자들이지만 종교적 의식은 두 신을 위주로 행한다. 하나는 코뿔새(hornbill)를 형상화한 신이고, 다른 하나는 물뱀을 형상화한 신이다.

종교적인 의식은 간단한 행사에서부터 긴 축제까지 다양하다. 사람들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만(마술치료사)을 찾는다. 남성도 여성도 모두 사만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이 종종 악령에 홀려있기도 하다.

필요로 하는 것들

지난 시간 동안, 오트다눔 사람들은 말레이시아 지배의 테두리에서 학대받아왔다. 그들은 인질 습격 등으로 많은 땅을 잃었다. 오늘 날에도 오트다눔 사람 일부는 오랜 착취의 역사로 인해 여전히 "노예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오트다눔족을 목표로 하는 선교 단체는 현재 4개가 있지만, 몇 백 명의 크리스천들이 있을 뿐이다. 성경은 아직 그들의 모국어인 '도호이'어로 번역되지 않았으며,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독교 자료들은 거의 없다. 아쉽게도 선교사들은 자기 민족에게 복음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현지 기독교인들을 세우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 연방대법, 동성부부 친권 전국적 허용 판결

지난해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을 내린 미국 연방대법원이 7일 자식을 입양한 동성 부부의 친권을 전국적으로 허용하라는 또 다른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놓았다.



일간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 판사 8명은 이날 동성 부부의 친권을 인정하지 않은 앨라배마 주 대법원의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고 나서 '모든 주는 동성 부부의 입양·양육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 결정에도 이를 절대 인정할 수 없었던 보수 기독교인 루이 루이 대법원장이 이끄는 앨라배마 주 대법원은 지금도 산하 지역 판사들에게 동성결혼 인증서를 발급하지 말도록 지시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앨라배마 주 대법원은 특히 조지아 주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 셋을 낳고 키우다가 헤어진 뒤 앨라배마 주로 이주한 한 레즈비언 동성 부부의 친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부모와 자식의 접촉을 막아 성 소수자 단체의 비판을 받았다.

루이 앨라배마 주 대법원은 동성 부부의 친권을 인정할 조치가 주 법이 무효이고, 존중하지 않는다고 지난해 9월 밝혔다. 미국 레즈비언권리센터(NCLR)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연방대법원은 동성 부부의 손을 들었다.

연방대법원은 미국 헌법에서 규정한 '충분한 신뢰와 신용'이라는 조항을 들어 앨라배마 주 대법원 결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각 주가 다른 주의 법과 기록, 재판 절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미국 헌법의 의무 조항이다.

조지아 주가 동성 부부의 친권을 인정한 만큼 앨라배마 주도 이를 승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성 결혼 합법 결정에 반대하던 보수 연방 대법관들도 앨라배마 주 대법원이 헌법 조항을 따르지 않은 것에 추상같이 대응한 셈이다.

연방대법원은 앨라배마 주 대법원의 결정은 조지아 주 법은 물론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면서 각 주는 다른 주의 판결이 논리에 어긋나거나 잘못됐다고 여겨질 때만 이를 무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V.L과 E.L로 알려진 레즈비언 커플은 1995년부터 2011년까지 동성 부부로 조지아 주에서 함께 살았다. E.L은 남성으로부터 정자를 기증받아 2002년과 2004년 자녀 셋을 낳았고, '아빠'인 V.L과 E.L은 세 자녀를 양육했다. 그러나 2011년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E.L이 자녀들과 함께 앨라배마 주로 이주하자 문제가 생겼다.

동성결혼에 엄격한 앨라배마 주가 조지아 주에 거주하던 V.L의 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녀와의 만남도 불허한 탓이다.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자녀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V.L은 "앨라배마 주 대법원이 내 친권을 무효로 하고 나를 입양한 자식들의 어머니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 낙담했지만, 오늘 연방대법원이 내 가족의 권리를 위한 판결을 내렸다"고 기뻐했다.

NCLR의 가족법 전문가도 "V.L과 수천 명의 입양 가족의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다른 주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양가족의 부모와 아이들이 헤어지는 일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휴전한 시리아, 돌아온 기독교인들... "교회 미래는 밝다"

"아랍 교회의 미래는 밝다.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흠어진 교회들은 새로운 화합의 영(spirit)으로 충만하다." 1일 국제로잔복음화운동 글로벌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시리아 내전으로 수많은

기독교인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일하셨다. 익명의 시리아 목회자가 제출한 4쪽 분량의 보고서는 "아랍 교회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경험하고 있다"고 기록했다. 익명의 목사는 '미래가 밝다(a brighter future)'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리아 기독교인들은 내전으로 심리적 쇼크를 겪었으며 상당수가 난민으로 전락했다. 내전 이전까지 인구의 9%가 기독교인이었다. 내전 발발로 5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보금자리를 떠났다. 폭격이 심했던 흠스는 기독교인 거주자가 많았다. 흠스 기독교인의 90%가 떠났으며 대부분의 가옥과 교회는 파괴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흠스의 장로 교회는 시리아에서 가장 큰 교회였다. 기독교인들은 비즈니스 분야와 교육계, 정부 단체에서 일하며 평화롭게 살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런 가운데 2-3년 전부터 일부 교회와 신자들이 다시 돌아와 인도적 구호 활동과 복음 전파에 나서며 '불안 속에서도' 희망을 심고 있다. 5개 교회가 네트워킹을 형성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전까지 기독교인이 접근조차 못했던 북동부의 데이르 에즈 조르와 락카 등 이슬람국가(IS) 점령지까지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시리아 교회는 이제 생존(survive)이 아니라 번창(thrive)을 고려 중"이라고 표현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무슬림들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르 에즈 조르 지역의 한 강경 무슬림 작가는 최근 기독교로 개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다수의 온건 무슬림들이 IS의 잔학행위로 (이슬람) 신앙이 흔들리면서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박해 신학'도 발전 중이라고 덧붙였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박해 상황 속에서 설 것인가. 저항의 자세는 무엇인가 등에 대한 고민이다. 화해와 용서는 핵심적인 이슈이다. 팔레스타인자미니스트리(LSM)는 2년 전부터 매년 '아랍세계의 복음적 사고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박해 신학을 다루고 있다. 이 자리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요르단 수단 레바논 이집트 시리아 출신 학자와 목사들이 모였다. 시리아 크리스천들은 전통적으로 평화주의자들이 많다. 테러에 저항하기 위해 어떠한 무기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토네이도 페어 속 성경만 온전했다... "또 기적"

토네이도로 폐허가 된 미국 버지니아 주 테퍼해늪의 한 교회에서 성경책과 찬송가들이 온전하게 남았다. 지난 24일 테네시 주의 고속도로 주행 중 전 소된 차량 안에서 온전한 상태로 발견된 성경책에 이어 두 번째로 전해진 '기적' 이야기다.



CBS는 지난 25일 테퍼해늪에 있는 성요한침례교회(St. John's Baptist Church)가 이 지역을 강타한 토네이도로 인해 완전히 파괴됐으나 성경책은 온전했다고 보도했다. 성요한침례교회는 145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다. 이 교회는 최근 보수공사도 끝냈으나 살인적인 토네이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이 지역과 교회는 속대밭이 됐다. 하지만 20여권의 성경책과 찬송 책들은 폐허 속에도 남아있었다. 비록 토네이도로 인해 성경책은 너털너털해졌지만 폭풍 속에서도 날아가지 않고 교회에 온전히 남아있었다. 버지니아주 경찰에 따르면 버지니아 주 재난본부에 보고된 사망자는 7명, 부상자는 최소 20명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도 조 플라드는 당시 토네이도의 위력에 대해 "마치 전쟁터에 있는 것 같다. 아무도 죽지 않은 것이 기적이다"고 말했다. 다행히 이날 교회에서는 성경공부가 예정돼 있었지만 토네이도가 다가온다는 소식이 취소돼 부상을 입은 성도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공화 주류, 트럼프 지지 총력전...슈퍼팩 반대 광고 확산

미국 공화당 주류 진영이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후보 지명을 막고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트럼프를 '가짜이자 사기꾼'이라고 규정하며 '반(反)트럼프' 캠페인의 첫 기치를 올린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도 연일 트럼프 패러기에 올인하고 있고, 막강한 자금력을 자랑하는 슈퍼팩(Super PAC·정치행동위원회)은 트럼프 반대 광고를 집중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대선 경선 2차 승부처인 오는 15일 '미니 슈퍼 화요일'에서 트럼프를 지지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그의 대선 후보 지명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전방위 공세를 펼치는 형국이다. 롬니 전 주지사는 6일 CNN 방송 인터뷰에서 "현 시점에서는 트럼프가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다른 더 좋은 선택의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니 슈퍼 화요일의 각 경선 지역에서 트럼프가 아닌 다른 주자들을 뽑아달라고 호소하면서 "마르코 루비오와 존 케이시(각각 자신들의 텃밭인 플로리다와 오크라이오에서 뽑아 줄 만한 인물이고, 또 트럼프를 딱딱 추격하는 테드 크루즈는 어떤 곳에서도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어떤 면에서도 보더라도 공화당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슈퍼팩의 트럼프 반대 광고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성장행동 클럽(Club for Growth Action)'은 7일 일리노이에서 200만 달러(트럼프 반대 광고를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의원 69명이 걸린 일리노이는 미니 슈퍼 화요일 경선지역 중 하나다.

이 슈퍼팩 회장인 데이비드 맥킨토시는 "트럼프가 지난 5일 (포스트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크루즈의 원에게 패배하면서 동력을 잃고 있다"면서 "공화당 유권자들은 트럼프처럼 큰 정부를 지지하는 진보주의자가 당 후보 자리를 꿰차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크루즈-루비오 단일후보 못이겨...단일화 최대변수

미국 공화당 대선 선두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주류 진영의 두 주자인 테드 크루즈(텍사스),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두 상원의원이 단일화할 경우 누가 나서든 지는 것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크루즈, 루비오 두 의원의 후보 단일화가 공화당 경선판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8일 공개된 ABC뉴스와 워싱턴포스트(WP)의 공동 여론조사(3월3-6일·1천명)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는 현행 다자 구도에서 여전히 34%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해 각각 25%, 18%에 그친 크루즈 의원과 루비오 의원을 크게 앞섰다. 하지만, 단일화를 전제로 한 양자 가상대결에서는 크루즈, 루비오 두 의원에게 모두 밀렸다.

크루즈 의원이 단일후보로 나선 경우 두 사람의 지지율은 54%대 41%로, 크루즈 의원이 13%포인트 앞섰다. 또 루비오 의원과의 양자 가상 대결에서도 트럼프는 45%에 그쳐 51%를 얻은 루비오 의원에게 6%포인트 뒤졌다.

지지를 격차로 본 경쟁력은 루비오 의원보다는 크루즈 의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며 따라 크루즈, 루비오 두 의원의 단일화를 압박하는 주류 진영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공화당 대선 후보 출신인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필두로 한 주류 진영은 노골적으로 '트럼프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15일 '미니 슈퍼 화요일'에서 트럼프 돌풍을 지지하겠다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Global Gateway University
www.goggu.us / info@goggu.us

학사, 석사 박사학위과정

학사: 신학, 기독교교육, 석사: 다문화, 영어교육, 상담학, 교회음악, M.Div, 박사: D.Min, 다문화, 교회음악, 크리스천리더십학사

1. 저렴한 학비, 통신 온라인 진도진행, 등을 통한 학점취득
2. 미국 초교과적인 국제복음주의협의회(EIA)로부터 목사인수 (남, 여)와 선교사 임명 받을 수 있으며 IEA 회원이 될 수 있다.
3. 본교는 미국 미주리주정부 교육부의 허가를 받은 대학이다.
4. 타대학 학점 최대한 인정 편입 가능.

DYNAMICS 다이내믹스
MARTIAL ADRENALINE ZONE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교회 타월 교회 티셔츠 프린팅 및 자수 광고배너 교회배너 제작

www.dynamicsworld.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총신 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 교육국 BPPE CODE 94874 (e)(1)인준학교

총장 이동규 박사
chongshinuts@gmail.com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el: (213)386-0300 (213)422-8916

힐링캠프 기도원

이선자 목사

검과 회복이 있는 기도 동산. 지친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주세요

Cell. (714)220-7660
3026 W. Ball Rd. Anaheim, CA 92804
jesussunja@gmail.com

고난의 신학: 옴기에 대한 묵상 (8)



이승현 박사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총장)

엘리후

옴기에서 나오는 엘리후는 신비적인 인물이다. 2장에는 옴의 세 친구가 소개되는데 엘리후의 이름은 언급되고 있지 않다. 그는 32장에서야 비로소 소개되고 있으며 다른 세 친구가 더 이상 옴에게 대답을 할 수 없게 되자 답답하고 분노한 마음에 입을 연다. 옴과 친구들의 논쟁에서 옴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을 주장하였고 이것은 엘리후로 하여금 옴뿐만 아니라 세 친구들의 무능력함에 대한 노여움을 사게 한다. 엘리후의 연설은 옴의 마지막 증언과 하나님의 현현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답변이자 하나님의 응답의 프롤로그 역할을 하고 있다.

엘리후는 지혜가 나이나 연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입김인 인간의 영에 있다고 말한다(32:8). 그리고 옴의 친구들이 더 이상 옴에게 아무런 대답을 주지 못하자 엘리후는 성령에 이끌린 선지자들처럼 그의 영이 참지 못하고 말을 해야만 안식을 얻게 됨을 느낀다. 그러면서 옴의 고통에 대한 질문은 결국 인간의 지혜와 논쟁이 아닌 하나님의 영만이 답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그는 다른 옴의 친구들과 달리 옴의 편에 서서 옴의 의로움을 변호하기를 원한다(33:32). 엘리후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옴의 범죄함을 지적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도 옴과 같이 흠으로부터

침대에 누웠을 때 다가오는 고통을 통해 인간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돌아서게 한다고 설명한다. 또 하늘에 많은 천사 중 한 명이 인간의 중개자로 그 인간의 의로움을 주장하여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리고 그의

왔음을 고백한다(33:6). 38장에서 폭풍우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비해 엘리후는 잔잔하게 부는 하나님의 입김을 통해 생기를 받은 인간으로서 자신이 옴에게 위협적이고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아님을 알린다(33:7).

엘리후가 옴이 한 말들 중에서 첫 번째로 반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 하셔도 인간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33:14).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오는 환상을 통해서 인간의 귀를 열어 가르치시고

기도가 응답을 받아서 그 인간이 의로움을 되찾을 때도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대적하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인간을 멸망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인간의 의로움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무지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다.

두 번째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비위를 맞추시는 분이 아니라고 증거한다(34:33).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왜곡하지 않으시고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신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에게 공평하게 행하시는 권력자에게 부정을 행했다고 욕할 수 없듯이 인간의 생명을 주장하는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무 이익이 없다는 옴의 주장의 부당함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옴의 모습은 시편 1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의인의 모습과 상반되며 오히려 악인의 길을 걷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불의한 자의 모습을 상기시킨다. 엘리후 눈에 비치는 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무신론자 또는 불가지론자이다. 자신이 주장하는 의를 인정받지 못하고 거 부당한 옴은 더 이상 죄와 의의 대한 의미를 상실하고 의의 삶에 대한 노력이 득없 (no profit)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죄 또한 옴에게 더 이상 두려움을 가져오지 않게

될 수 없음을 믿는다. 그리고 이러한 신학적 견해는 엘리후로 하여금 죄와 고난의 연결고리를 끊으며 옴의 고난의 새로운 이해를 돕게 한다.

엘리후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빛도 지지 않았으며 우리의 행위에 대해 어떠한 의무도 갖고 계시지 않지만 결코 의인을 저버리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다(36:7).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 분이 공의를 억누르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신앙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세 친구들이 옴의 과거의 삶에 집착해서 그 삶이 어떻게 현재의 고난을 낳게 됐는가에 대한 논쟁을 하였다면 엘리후는 고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하는가에 더 초점을 맞춘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비관하고, 분노와 교만에 빠지는 것을 조심해야 하며, 하나님을 조소하는 자로 변해서는

신다는 희망의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것도 그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넓고 푸른 초장으로 나아갈 수 없기에 역경에 역경을 더하셔서라도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깨달게 하신다는 역설적인 주장이다. 따라서 엘리후는 고난이 갖고 있는 회복과 치유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고행을 통한 자기 구원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부러 고난을 찾아 나서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로 끝난다. 우리가 원하지 않은 역경이 왔을 때 우리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으로 볼 수 있다. 고난이 우리의 문제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고난은 하나님의 의의 문제이며 그분의 공의는 영원히 변함이 없음을 엘리후는 옴과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옴기에서 엘리후는 유일하게 회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인물로 묘사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 옴의 마음을 움직여 위로와 함께 회개를 촉구하는 인물로서 엘리후는 나에게 성령님과 같은 존재로 다가온다. 우리의 도움(parakletos)이 되시는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시어서 우리가 약할 때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중보해 주시지만 또 우리 마음에 죄와 의, 그리고 심판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요16:7). 오늘도 고통 받는 이들에게 우리를 위로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도하며 기다린다.

james.lee@itsla.edu

인간으로서 마지막 답변이자 하나님 응답의 프롤로그 역 위로와 함께 회개 촉구...고난에 대한 우리 응답에 더 초점



아하 그렇구나! -성경의 압축과일 풀기 (25)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담임)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응답받는 기도

기도와 가장 비슷한 것이 있는데 낚시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낚시하는 사람들에게서 배우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다리는 것이다. 낚시할 때는 기다릴 줄 알면서, 살아가면서는 기다리지 못한다. 기도할 때는 기다리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에는 언제나 애씀보다 기다림이 더 많아야 한다"(이블린 언더힐).

기도의 생명은 기다림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기도하고 나서 기다리는 것이다. 기도의 씨를 뿌리고 축복의 열매를 거두려면 기다려야 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시40:1).

사가라는 제사장이었다. 결혼을 했는데, 오랫동안 아내에게 아이

가 생기지 않았다. 그랬으니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는가?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감각 무소식이었다. 그들은 더욱더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기도 응답이 없었다. 결국 엘리사벳은 폐경기에 들어서고 말았다. 그래서 그들은 자식이 없는 것을 그들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 그렇게 20년도 훨씬 넘는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사가라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눅1:13).

사가라는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눅1:18).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다. 그들이 나이가 많았다는 사실을 누가복음은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눅1:7, 18, 36). 그런데 아이를 잉태케 될 것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자식을 줄 생각을 하셨던 것일까?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들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 귀

에 들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 자식을 주시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기도는 언제 한 기도였는가? 여제 한 기도였는가? 오늘 아침에 드린 기도였는가? 아니다. 1년 전에 한 기도도 아니고, 3년 전에 한 기도도 아니고, 5년 전에 한 기도도 아니고, 10년 전에 한 기도도 아니었다. 적어도 20년, 30년 전에 했던 기도인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고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다.

세상에! 하나님은 기억력도 좋으시다. 어떻게 20년, 30년 전에 한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때 한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인진, 놀랍지 않은가?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까마득하게 그 기도를 잊어버리고 있었다. 당사자는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기도도 기억하시고 응답해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잊어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루어 주시는 기도가 얼마나 많겠는가? 오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서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지 않은가?

기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한 기도들 가운데 응답되지 않은 것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 기도들이 폐기처분된 것은 아니다. 다 쌓아 놓고 계시다.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jinhle1004@yahoo.com



원문번역성경 (신약)

번역·주석 **고영민**
(前 백석문화대 총장)



히브리어·헬라어 성경 원문을 알기 쉽고 정확하게 번역, 전통적인 해석 원리에 의해 성경적으로 주석한 하나님의 말씀

한국 선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말로 옮겨 놓은 **聖經 翻譯의 決定版!**

새 시대, 현대 신앙인을 위해 누구든지 쉽게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체계적인 기획 하에 출간된 **劃期的 力作!**

한국교회의 신학과 신학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나갈 **성경 주석의 源泉의 寶庫!**

한국 선교 130주년 기념

•본서의 12가지 특징

1. 전통적, 성경적 해석 원리에 의한 주석
2. 성경 해석의 기본 체계를 삼위일체식으로 강해
3. 원문을 축자적으로 정확하게 번역, 수용 언어로 알기 쉽게 전달
4. 신학의 학문성과 주석의 창조성을 최대한으로 높임
5.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성경적으로 평가, 결론 내림
6. 구속사의 맥을 따라 원어와 문장 등을 명확하게 설명
7. 성경 시대의 배경들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인용
8. 성경의 기본 자료인 고대 사본들을 세밀하게 비교, 대조
9. 성경 지리와 고고학, 문화, 풍습 등을 현장 답사 경험을 통해 생생하게 묘사
10. 원어와 동의어, 반대어, 동음어어를 상세히 기술
11. 성경 본문을 성경연구와 설교준비를 위해 내용별로 분해
12. 43개 번역본들을 통해 성경의 다양한 번역 가능성을 제시

목회자, 신학생, 성경연구자, 평신도 필독서!

리더십 코멘터리 (11)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교회 개혁은 리더십의 개혁이다

Leadership is reaching a crisis

교회와 기독교가 심각한 상태이다. 이미 위기를 알리는 빨간 불이 켜진지나 오래되었다. 오래전부터 교회의 성장은 멈추었고, 교회의 사회적 공신력은 바닥까지 내려왔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가톨릭 신도가 늘고 있는데 반해 개신교의 교세는 갈수록 곤두박질치고 있다. 아울러 교회와 목회자의 신뢰도는 점점 더 땅에 떨어지고 있고 반기독교적인 사회 정서는 더 확산되고 있다. 언제 높은 도덕성으로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고, 예언자적 통찰력으로 사회 변혁에 선구자 역할을 했던 교회와 목회자가 오늘날 가장 비판받는 종교,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목회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영적리더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이다. 따라서 영적 리더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리더 자신의 힘이 아니라, 리더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 영적 리더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따라서 영적 리더는 하나님께 의존하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야 하는 모든 영역에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영적 리더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이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만, 때때로 영적 리더들을 통해 세속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3.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참된 리더
영적 리더십의 최대의 함정은 하나님의 뜻

의 일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지길 원하신다.

TRUE LEADERSHIP

교회가 교회다워지는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리더십의 개혁이다. 소명 받은 리더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

1. 참된 리더십은 인격이다
리더십은 성숙한 인격에서 나온다. 성숙한 인격자체가 리더십이다. 성숙한 인격에서 감화력과 영향력이 나온다. 인간이 추구하는 완전한 인격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해준다. 이 아홉 가지 열매는 인격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좋은 기준이다. 리더십은 바로 성숙한 인격 그 자체임을 알 수 있다. 리더십은 관계이다. 인간은 관계 속에 살아간다. 관계성은 존재의 본질에 속한다. 따라서 인간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고, 그 안에서 성장하며, 원만한 관계를 통해 풍성한 삶을 누린다. 리더십은 원만한 관계이다. 상하좌우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리더십이다. 상사를 받들고, 동료들과 협력하며, 부하직원들에게 본을 보이는 능력이 리더십이다. 인간관계가 원만치 못한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다.

2. 참된 리더십은 은사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분량의

리더십은 인격의 변화와 성숙, 원만한 인간관계와 상호 섬김 하나님의 목표 추구하는 삶으로 옮겨가도록 영향력 발휘해야

TRUE LEADER

리더십이란 리더가 자신의 목표나 팔로워(follower)와 공유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설득이나 모본을 통해 한 단체나 조직을 이끌어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영적 리더란 사람을 이끌도록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끄는 자, 리더십을 위해 기능적 능력을 발휘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크리스천 리더십의 핵심 과제는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추구하는 것이다. 영적 리더는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는데 관심을 쏟아서 안 된다. 영적 리더는 자기 교회를 위해서든 기업체를 위해서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영적 리더십의 핵심은 영적 리더가 자신과 자기 조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있다.

1. 하나님의 목표를 추구하는 참된 리더
리더십의 핵심은 영향력이다. 그러나 영적 리더는 단순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자체에 만족하면 안 된다. 영적 리더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사람들이 자기 철학과 삶의 스타일을 따르는 삶에서 하나님의 목표를 추구하는 삶으로 옮겨 가도록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리더는 책임감을 갖는다. 책임감은 모든 리더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중의 하나이다. 영적 리더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의존하는 반면,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돕는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리더로서의 역할과 태도를 보여주시 않으면, 그는 리더가 아니다. 참된 영적 리더는 사람들을 현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해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준다.

2.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한 참된 리더

리더십을 주신 것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리더십을 주셨다. 곧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다. 은사란 사역을 위한 실제적인 능력이다. 그러나 은사는 단순히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 발전되고 확장된다. 그리고 이 은사는 주어진 각 분야에서 리더십을 갖게 만든다. 따라서 리더십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며, 나아가 말은 바 사역과 직책에 부합하는 은사를 개발함으로써 확장된다. 그래서 자신의 은사를 빨리 발견하고, 이를 열심히 갈고 닦는 것이 리더십 개발에 필수적인 일이다.

참된 리더십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회의 리더십은 아직도 세속적 리더십 그대로의 모습이다. 군림하고, 지배하고, 전횡한다. 교회 안에서조차 여권을 누가 높이는 시비가 그치지 않으며, 지도자들의 이런 고전적인 권위주의와 비교의식 때문에 실패한 교회가 한 둘이 아니다. 리더십이란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닌 인격의 변화와 성숙, 원만한 인간관계와 상호 섬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주님은 교회가 경건과 거룩을 회복하고 말씀 안에서 개혁되기를 원하신다. 오늘날 교회 개혁은 바로 리더십의 개혁이다.

sondongwon@gmail.com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목회 라이선스

두 사람의 체온이 어울려도 과히 짜증스럽지 않은 날씨이다. 봄이 온 탓이다. 그래서 봄은 서로 속사람의 외로움과 서글픔을 따스하게 감싸주는 가슴의 에너지를 발산하나다.

언제부터인가 기도 중에 생각나는 것들을 바로 메모해두었다가 그 일을 실천해보는 습관이 생겼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계시인가... 그래서 남편과 나를 위해 '목회 라이선스'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어 오늘 아침 웬 종일 그걸 만드느라 시간을 다 써버렸다.

우선만 하려해도 라이선스가 필요한데, 영혼을 운전해 가는데 어찌... 그래서 신학교 졸업장이 아닌, 주님이 인정하는 진짜 라이선스를 받는 생각이 떠오르자, 가슴이 뛰어서 다른 기도를 어떻게 찾아야겠나. 그걸 예쁘게 액자에 넣어 책상위에 올려놓고 매일 아침마다 주님 보듯이 드러라 보리라라는 심상으로... 그래서 이런 글들을 적어 보았다.

첫째, 매일 아침, 삶의 성지를 다녀오자. 삶의 성지를 다녀오면 맘이 많이 부끄럽고 아파오고 불편해진다. 게으르게 살아온 것은 아닌가, 주제가 불확실하지 않은가, 너무 좁게 살아온 것은 아닌가, 삶의 내용이 빈약하고 깊이가 없지 않은가... 수업을 날마다 깎고 다듬어야 하듯, 한번 청소한 방이 언제나 깨끗하지 않듯이, 이렇게 아침마다의 성지 순례는 회개의 기도 시간이고, 지금 있지 않은 새로운 것을 문득 깨닫는 시간이며 존재의 깊이와 높이에 관여하는 시간이라. 이렇게 아침마다의 삶의 성지에서 하나님의 업음을 맞이하면 좋겠다.

둘째, 산소 같은 영혼을 유지하자. '참'을 지닌 이만이 '참'을 수 있다. 맞는 말이다. '참' '산소' '맑음' '투명' 이런 단어들 내 마음의 단어들이고 또한 입술로 표현되는 말들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 속을 바람이 통하도록 험령하게 비워주어 이 토양에서 생명과 사랑과 쉼의 꽃들이 막걸리 자라도록 맑은 산소가 계속 솟아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한 사람의 거대한 비움으로 인해 온 우주에 산소가 공급되는, 그야말로 만물이 살아 숨을 쉬게 된 대역사의 부스러기라도 흉내 내는 산소 같은 영혼을 유지해 나가자.

셋째, 하루하루 큰 웃음으로 신명나게 목회하자. 정말 사랑할 수 없다면 사랑해야 한다는 강박관념부터 버려 버려라. 그래야 또 다른 개혁의 짐으로 마음을 멍들게 하지는 않으리라. 그래서 자신을 들볶지 말고 그냥 놔두면 남도 들볶지 않게 되리라. 그것이 어쩌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매 순간 숨을 쉬는 것도, 이렇게 겨울이 봄으로 변하는 것도 힘들이지 않고 일어나듯, 지구가 요란을 떨지 않고 태양 주위를 소리지 돌듯이, 그렇게 자연스레 살면 나에 대한 비탄의 말도 그쪽 무심히 물 흐르듯 듣고 흘러 버릴 수 있지 않을까. 마귀의 표적은 우리의 건강도 재능도 은사도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라. 그러므로 심심하고 심각하고 심상한 일들이 그냥 웃음이 되도록...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사모 모임에서의 속제는 눈만 마주치면 무조건 먼저 크게 웃자는 숙제였다. 그 덕에 교회에 여기저기서 그야말로 파안대소가 울려 퍼졌다.

넷째, 생명을 걸고 목회하자. 미치면 미치고 안 미치면 못 미친다. 무슨 일이든 미친 듯이 3년 동안만 최선을 다하면 그 일에서 우뚝 설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10년이 넘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면 목회를 죽을 만큼 하지는 않았다는 거 아닌가. 축구선수가 생명을 내놓고 축구하다... 오페스트라 지휘자가 온 몸을 날려 지휘하다... 심장이 한 번만 두 번을 구하다, 그렇게 마지막 힘을 다하는 목회를 해보라. 열정이 없는 것은 건강도 환경도 그 어떤 것보다 주님과 나와의 거리 문제가 아닐까... 우리의 열정으로 성도들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자. 영적 실력으로 성도들의 손에 장비를 쥐어 주자. 조금은 울랐으니 한 걸음 한 걸음 힘을 내어 산 정상에 올라 합성을 질러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정상에 가야만 보이는 세계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을 걸었을 때만 있는 것이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던져 버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리라.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뫼뫼 때 걸으셨기 때문에... 장막이 넓어지면 우리의 계획이 정확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되어있는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참을 수 있는 '참'된 마음으로 죽음을 다하면 어느 날 갑자기 작품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오늘 아침 그런 맘으로 가슴 뛰는 목회 라이선스를 만들어본다.

changsam01020@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 | | | | | | |
|---|---|---|--|--|---|---|
| <p>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오후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 <p>덴버에담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세환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p> <p>Tel. (303) 364-1621 389 Quentin St., Aurora, CO 80011 www.kkoreanchurch.org</p> |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혜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 <p>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중문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성서예배: 오후 8:00</p> <p>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www.kjhs.org</p> | <p>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부흥예배(전):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907)344-6446,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p> |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45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 청년부: 오후 11:30 수요 예 배: 오후 8:00 영 어, 목 연 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p> <p>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ingham, MA 01948</p> | <p>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일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성서예배: 오후 8:00 대학 청년부: 오후 11:00 수요 예 배: 오후 8:00 영 어, 목 연 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p> <p>Tel. (704)877-668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p> |
| <p>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도안영예배: 오후 7:00</p> <p>Tel. (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p> | <p>시에틀랜드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p> <p>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schurch.org</p> | <p>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중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ychurch.org</p> | <p>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 성서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501)920-9049, 사헬,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kjhs.org</p> | <p>앵커리지델린교회 담임목사: 유제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부흥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 <p>엘파스델린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부흥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교회(915)755-1490, 사헬(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 <p>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부흥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8:00(월-토)</p> <p>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ter Rd., Horsham, PA 19044</p> |
| <p>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성서예배: 오후 8:00 토요성서예배: 오후 9: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p> <p>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aleti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 <p>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1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www.kj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35</p> |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창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p> <p>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kcc.org</p> | <p>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영어예배: 오전 7:45 원년예배: 오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p> | <p>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p> <p>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p> |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들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



목회서신

바보 열전



이재근 목사 (주사랑산교회 담임)

2016년 새해가 되면서, 제 주변에서 여러분의 선, 후배, 동료 목사님들로부터 '바보새'에 대한 동영상 받아보고 감회가 새로워, '바보새'라고 불리는 새에 대한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게 날지 못한다.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이 새를 '바보새'라고 부른다. 그러나 폭풍이 몰려오는 날, 모든 생명 이 숨는 그 때, 바보새는 숨지 않고 절벽에 서 있다. 그 순간, 긴 날개가 꿈틀거린다. 바람이 거세질수록 바람에 몸을 맡기며, 바보새는 절벽에서 뛰어내린다. 폭풍우 치는 그 때가 바보새에게는 비상할 수 있는 기회.

다에 그림자를 만든다. 6일 동안 한 번의 날갯짓도 없이 날 수 있고, 두 달 안에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바보새의 진짜 이름은 '알바트로스(Albatross)'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는 새. 한 번도 쉬지 않고, 먼 거리를 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힘이 아닌 바람의 힘으로 비행하기 때문이다.

는 비상할 때를 알며, 바람을 믿고 용기 있게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활공의 명수'로 불린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저에게 보내주었다는 것은 그 내용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내용을 보고, 같이 공감한다고 답신을 보냈습니다. 말세지 말을 살아가면서, 반 미치지 않고는, 제 정신으로 살아가긴 힘든 세상입니다. 똑똑한 체 살다가는 정말 미칠 지경에 이르고, 바보처럼 살아감이 세상적, 육신적으로 현명한 선택인지도 모릅니다.

치는 바보-아브라함,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 동안 품삯도 없이 일만 죽었다고 한 바보-야곱, 13년 동안 노예생활, 감옥생활로 소망도 없는 바보-요셉,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친 바보-모세, 사울 왕의 시기로 쫓겨다니는 바보-다윗,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세기의 기도대결을 했던 겁이 없는 바보-엘리아,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 엘리아 선지자를 따라만 다니는 바보-엘리사,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바보-사도 바울, 남의 죄값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은 바보-예수 그리스도 등이 좋은 예입니다.

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바보들을 들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꿈과 비전의 총리 대신으로,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로, 이방인의 위대한 사도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시켰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바보새가 절벽에서 뛰어내려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장 높이, 한 번도 쉬지 않고, 먼 거리를 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닌 바람의 힘으로 서 가능했듯이, 우리도 예고 없이 고난과 환난이 닥쳐올 때, 그 고난과 환난을 이용하여 비상할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비상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과감히 도전하십시오, 고난과 환난의 때를 기쁨과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jaekunlee00@hotmail.com

2016년도 상반기 미주한인교단 총회일정

28일 순복음세계선교회, 하나님의성회 시작, 6월28일 NCKPC까지

2016년도 상반기 미주한인교단 총회 일정이 발표됐다. 총회는 3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와 하나님의성회 한미총회를 시작으로 6월 28일에 실시되는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NCKPC)까지 일제히 열린다.

Table with 5 columns: 교단, 지역, 날짜, 장소, 문의. Lists various church conferences and their details.



제2차 세계한인침례교선교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

제2차 세계한인침례교선교대회 3백여 명 참석

제2차 세계한인침례교선교대회(이하 세한침대회)가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라스베이거스의 골든코스트 호텔에서 개최됐다. 총 245명(선교사 60명 포함)이 등록했으며 현장 참석자를 포함 3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침례교회에 감사하다"며, "하나님은 이번 사흘 동안 (모든 경계를 열어) 우리를 성령 안에서 꿈꾸게 하시고, 기도하며 깨어나는 앞으로의 3년, 10년이 되게 하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 제5차총회에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진리를 사고팔지 말라’

세이언 5차 총회, 새 총회장 김순관 목사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이하 세이언, 회장 김순관 목사) 제5차 총회가 3월 2일 오전 10시 LA 로템스 호텔에서 개최돼 신임 회장 김순관 목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을 수 없다 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왕이신 몸된 공동체에 서 하나님의 자녀,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거짓 예수, 거짓 하나님, 심지어 여자 하나님까지 등장해 한국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반드시 비진리를 이긴다"고 피력하며 "이번 5차 총회가 비상 총회이지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만 추구하는 세이언이 되도록 기도하자"고 강조했다.



2016년 세계기도일 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2016년 세계기도일예배 예배문 작성국 쿠바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

미주한인교회 여성연합회(회장 이린에 장로)가 주최한 남가주 지역 2016년 세계기도일 예배가 5일 오전 10시 선한목자교회(담임 고태형 목사)에서 열렸다.

기도일 예배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하며 "주로 LA 위주로 드러졌던 세계기도일 예배는 앞으로 남가주의 각 지역을 순회하며 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경통독을 위한 기적의 3일’

OC교협, 에스라사역원 공동주관, 강사 주해홍 목사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승기 목사)와 에스라성경통독 사역원(원장 주해홍 목사)이 공동 주관한 성경통독을 위한 기적의 3일 세미나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7일부터 9일까지 에스라통독사역원 주해홍 목사가 강사로 나선가운데 개최됐다.

고 있다. 무엇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마음이 표현된 책"이라 설명했다.



OC교협,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이 공동주관한 성경통독을 위한 기적의 3일 세미나에서 주해홍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이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이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내 사라를 통해 낳은 이삭"이라 언급하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한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성령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에 만난 것이 아니다. 야곱은 자야할 시간에 편하게 잠을 자는 것이야. 이는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막10:13-16)라는 주제로 열린 2016년 세계기도일 예배는 최미란 사모(벨리연합감리교회)의 사회로 시작, 이린에 장로가 환영 및 세계기도일을 소개했으며 2016년도 예배문 작성국인 쿠바를 영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보기도 시간에는 △우리 가정의 영성회복과 치유를 위해 △미국과 이민교회를 위하여 △한국과 한국교회, 북한과 탈북자들을 위하여 △쿠바를 위한 기도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수자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동부교계 기사판



뉴욕일원 한인교회들 리더십 교체 난항

새 담임목사 3년 내 사임 줄이어

최근 뉴욕일원의 몇몇 한인교회들의 리더십이 교체됐다. 1세대 목회자들의 은퇴에 따라 후임으로 온 담임목사들이 일반적으로 3년을 넘기 어려워 교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먼저 뉴저지 팰리세이드교회 5대 담임목사로 김성민 목사가 부임했다.

1984년 정인영 목사가 개척한 팰리세이드교회는 그동안 권일원 목사, 최정훈 목사, 임정섭 목사 등이

담임목사로 재직했으며 전임 임정섭 목사가 취임 3년만인 2014년 9월 사임한 후 1년반 동안 담임목사가 공석으로 있었다.

팰리세이드교회는 1월 31일 공동의회를 열고 김성민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정했으며, 3월 1일 열린 미국장로교 동부한미노회 77차 정기노회에서 노회의 인준을 받았다.

김성민 목사는 웨스터민스터신학교를 졸업하고 PCA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포틀랜드 벨엘교회와 남가주 새소망교회와 나성안교회 담임목사를 거쳐 팰리세이드교회 청빙을 받았다.

또 몇몇 교회 담임목사가 사임했다.

먼저 뉴욕 은혜교회 이승재 목사가 지난 2월 28일 주일을 마지막으로 사임했다. 이승재 목사는 1987년 은혜교회를 개척한 후 지금까지 담임목사 사역해왔다.

뉴욕성결교회(장석진 원로목사) 2대 담임 강기성 목사가 1월 24일

부로 사임하고 한국으로 갔다. 영국의 한인교회에서 공부하면서 목회하던 강 목사는 1년 전 뉴욕성결교회 청빙을 받고 부임해 지난해 6월 14일 담임목사로 취임한 후 7개월여 만에 사임했다.

뉴욕베데스다교회 오상연 후임목사가 2월 21일 사임서를 제출하고 28일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는 후 사임했다. 엘머스트에 소재했던 뉴욕베데스다교회는 지난해 말 베이사이드로 교회당을 옮기고 11월 8일 헌당예배를 드린 바 있다. 2년간 기간을 가졌던 오 목사는 힘에 겨워 자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기 목사는 새로운 후임을 염두에 두고 교인들과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유원정 기자)

PCUSA 동성애정책대응 새모델 '복음주의연합'

아틀란타노회 10여 한인교회...13일 출범감사예배

미국장로교(PCUSA) 아틀란타노회에 소속된 10여개 한인교회들이 '복음주의연합'을 결성했다. 이 단체는 노회내 상당한 행정력을 위임받는 노회내 공동체다.

지난 2월 29일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식 출범을 선언했으며 또 오는 13일(주)에는 출범 감사예배를 가진다.

'복음주의 연합'은 △개교회 모든 목회 사역과 목회자들의 이동을 관장할 수 있는 자치성 △복음주의적이며 보수신학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율성 △선교와 교회 개척의 주도성 △목회자 후보생 안수와 시편 영일 독립성 등을 지니고 있다. 준노회 형태로 노회로부터 상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공동체를 허락받은 것은 미국장로교내 처음 있는 일로 알려졌다.

또 동성애에 대한 입장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 남자와 여자를 독특하게 창조하셨음을 믿으며, 남녀 사이에 어떤 우열이나 차별이 없으며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도 동등하게 부르심 받았음을 고백한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시기 위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

하는 결혼을 만드셨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부름 받은 가운데서 맺은 언약을 맺고 고백한다"고 밝혔다.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정인수 목사 △부회장 한병철 목사 △서기 조홍석 목사 △회계 이호웅 장로.

소속교회는 연합장로교회(정인수 목사), 중앙장로교회(한병철 목사), 가나안장로교회(김종현 목사), 한인장로교회(백성식 목사), 복음동산교회(박준로 목사), 뉴비전교회(전영철 목사), 마리아타장로교회(박종렬 목사), 성령사관학교(장영일 목사), 카리스교회(대니얼박 목사), 크로스라인교회(대니얼박 목사), 메트로 아틀란타를 중심으로 12개 교회로 시작되며, 앞으로 개척 교회와 기존 교회 영입 등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복음주의연합'은 향후 아틀란타노회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미국 교계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노회와 차별화된 사역과 선교, 리더십 양육 등의 활동들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목사회 제 1차 임실행위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임원교체 · 월별 행사계획 발표

뉴욕목사회 제 1차 임실행위원회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김영환 목사) 제1차 임실행위원회가 지난 3일 오전 10시30분 뉴욕베데스다교회(김원기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목사회는 1부 예배, 2부 기도회, 3부 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1부 예배는 허윤준 목사 인도로 기도 이희선 목사, 말씀 김종훈 목사, 통성기도, 광고 장현숙 목사, 축도 김원기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중훈 목사(뉴욕예일장로교회 담임)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행13:21-23)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며, "하나님은 목회자도 폐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신다고 생각할 때 두렵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는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위험이나 희생도 불사했다. 둘째, 외모는 작지만 성실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큰 믿음을 가졌다. 셋째, 눈물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넷째, 평생의 소원이 여호와와 전에 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계획이나 방법보다 깊은 말씀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는 기본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기도회는 △한국과 교회, 임원수 목사의 건강을 위해(정순원 목사) △미국과 미국의 영성을 위해(권캐더린 목사) △뉴욕교회를 위해(목사회 회원들의 건강을 위해(박윤선 목사)의 제목으로 진행됐다.

김영환 목사 사회로 진행된 회의는 안장의 목사의 개회기도 후 회원점명(장현숙 목사), 업무보고(허윤준 목사), 회계보고(안경순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폐회 및 식사기도는 황경일 목사가 맡았다.

목사회 2016년도 월별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1월: 신년기도회 △2월: 뉴욕주청사 방문 기도(네일협회) △3월: 1차 임실행회, 목회자를 위한 전도 세미나, 목회자중경회장단 초청 △4월: 특별기도회, 야외찬목회 △5월: 효도잔치, 목사영성세미나, 5개주 체육대회 △6월: 2차 임실행회 △7월: 영성 세미나 △8월: 신왕 뮤지컬 투어(삼손스토리) △9월: 특별기도회 △10월: 가을체육대회, 선관위 모임, 45회 회장 및 부회장 임후보 등록 공고 △11월: 3차 임실행회, 감사, 총회.

회계는 총수입 3만1500여 달러, 지출 1만 2천800여 달러, 잔액 1만 8천695달러라고 보고했다.

한편 뉴욕목사회는 신임 총무 허윤준 목사와 서기 장현숙 목사로 임원이 교체됐음을 알렸다.

(유원정 기자)

(3면에서 계속)

기독교 우파의 '얼굴'인 제임스 돕슨 목사(포커스온더퍼밀리나 웰프 리드 목사(크리스천코얼리션) 등 전통적 지도자들이 한결 같은 이슈들(동성애, 낙태)을 고집해온 반면, 새로운 성향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기독교 우파가 비교적 덜 중요하게 다뤄 왔던 이슈들(빈곤, 에이즈)로 관심의 영역을 넓혀 왔다. 이들은 전통적 이슈를 버리지 않았으며 보수적 가치를 위해 목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몇 가지 이슈에 국한된 듯 한 복음주의의 이미지를 벗고자 때로는 '소모적'으로 느껴지던 기독교 우파의 전략에서 탈피하

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들은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 기꺼이 그래야 한다"는 기독교 우파의 방식과도 거리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해서, '보다 상냥하기(nicer)'를 선택한 이들에게서 과거 기독교 우파 지도자들을 전투적으로까지 비취지게 했던 '동지가 아니면 적(with-us-or-against-us)'이라는 식의 정치적 접근법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와는 다른 미국의 정치적·사회적 환경 가운데서 변화가 불가피하며, 정치가 아닌 빈곤이나 에이즈 퇴치에 앞장서는 새로운 대

안적 리더십에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결론으로, 종교적 우익이란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는 보수 기독교세를 일컫는 말로 이들의 특색은 전통적 가족의 의미를 중요시하고 세속주의와 맞서 낙태와 동성애를 반대하며 신앙은 곧 도덕과 통한다는 입장에서 있다. 이들은 정치와 사회, 문화, 교회에서 개인의 신앙과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특히 90년대 말 미국을 하위수였던 소위 '문화전쟁'은 보수 기독교를 자극했으며 '종교적 우익'의 재정비를 부채질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즉

오바마 대통령 집권 이후, 정치적 성향에서 빈곤과 에이즈 퇴치라는 사회적 쟁점에 집중을 하고, "적이 아니면 동지"라는 극단적인 강경 입장에서 '상냥하게' 달라진 감수자의 진영에서 소위 '종교적 합수' 또는 '가치 지향적 유권자'의 영향력이 이번 대선에서 과연 다시 한번 발휘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트럼프는 '가치'와는 동떨어졌고, 크루즈는 공화당내 지지 기반이 없으며, 루비오는 샌드러머 '가족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cross NY, NJ, and other regions with contact info and pastors.

세계교회 지도자들 ‘한반도 평화 기도운동’ 적극 동참 다짐

WEA 세계지도자대회 폐막 결산 및 과제

세계복음연맹(WEA) 세계지도자대회가 4일 폐막됐다. 40개국 90여명의 세계복음주의 교회지도자들은 ‘복음 안에서의 동역’이라는 주제 아래 한반도 평화와 효과적 복음전파를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반도 평화통일, 임현수 목사 석방위해 간구=이번 대회의 가장 큰 성과는 세계 복음주의 교회지도자들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간구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2일 경기도 파주 관문점과 임진각을 방문하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생생히 목격했다. 3일에는 1년 넘게 북한에 억류 중인 임현수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목사의 석방을 간구하는 기도회도 개최했다. 복음주의 교회지도자들은 4일 ‘한국 국민에게 전하는 WEA의 친선 메시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

도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세계 수백만 명의 복음주의자들은 매일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남북한 국민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며 “한반도 주변 정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도록 기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평화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를 수 있다. 남북한 국민과 정부 지도자는 물론 한반도의 평화·연합을 위해 기도하자”며 세계교회에 중보기도를 요청했다. 이번 대회에선 종교적 박해, 난민 문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여

성의 역할, 평화 중재자로서 기독교인의 역할 등 세계교회의 다양한 문제가 논의됐다. 에프라임 텐데로 WEA 총무 겸 대표는 “현대 사회에서 산업 교육 문화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다”면서 “한 분야의 변화가 다른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각 분야에서 성경대로 살아가려는 크리스천이 많이 생겨난다면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WEA 국제본부가 풀어야 할 숙제들=WEA 국제본부는 세계지도자대회를 통해 한반도 평화기원과 교회연대라는 성과를 올렸지만 몇 가지 숙제도 남겼다. 대회의 목표는 ‘성경적 시각으로 국가·국제적 이슈에 대해 바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WEA 국제본부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물론 회의결과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복음주의 교회가 건전한 정치권과 연대할 수 있는 방안제시도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런 이유로 참가자들은 ‘크리스천이 사회이슈에 무관심할 수 없다. 모든 문제가 정치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을 WEA가 제시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WEA 국제본부는 장재형(데이비드 장)목사와 어떤 관계에 있는 지 밝히 달라는 요구에 대해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텐데로 총무는 기자회견에서 “선교학자인 랄프 윈터로부터 신학훈련을 받은 장 목사를 과거 만난 적이 있다”면서 “2012년 미국 ‘크리스체너티투데이’가 장씨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장씨가 WEA에 영향력을 미치거나 컨트론했다는 것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텐데로 총무의 해명과는 달리 WEA 공식 홈페이지에는 텐데로 총무와 장 목사가 북미위원회 위원으로 기재돼 있다.

선교한국대회, 8월 세종대서 열린다

16년 만에 서울서 개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선교대회로 꼽히는 선교한국대회가 16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된다. 선교한국(상임위원장 이대행)은 “선교한국 2016 대회가 오는 8월 1-6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열린다”고 2일 밝혔다. 대회 참가 신청은 이날 시작됐다. 대회는 2000년 이후 경기도와 충남 등 수도권 인근에서 주로 열렸다. “그런즉 우리도”(히 13:13)를 주제로 개최되는 선교한국대회는 강의와 축제한마당으로 나눠 진행된다. 성경강해 강사로는 커크 플렉클린 위클리프국제연대(WGA) 대표와 외종부(남서울교회) 목사가 나오며, 주제 강사로는 김용훈(위성틴열린문교회) 목사, 이만음(프론티어스) 천민찬(OM) 선교사 등 신학자와 현장 선교사, 목회자들이

참가한다. 강의는 총 117개 강좌로 구성되며 39명의 현장 선교사들이 코디네이터로 참여한다. 대회는 선교한마당 축제에서 하이라이트를 이룬다. 다양한 볼거리와 참여, 기도 등 행사들이 준비돼 있다. 선교한마당에서는 대회 장소인 세종대 전체가 대륙별 전시관으로 탈바꿈해 선교 정보를 제공한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영화 상영 등도 이때 펼쳐진다. 1988년 시작된 선교한국대회는 청년·대학생들에게 선교적 사명을 심어주고 있다. 2년마다 대학생선교단체와 파송 선교단체, 지역교회 등 43개 기관이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개최하고 있다. 올해 대회는 조이(JOY)선교회가 주관한다(missionkorea.org).

부산시민 11.5%가 기독교인

부산성서화운동본부, 사상 첫 39개 교단 1829교회 전수조사

부산성서화운동본부(본부장 안용운 목사·온천교회)는 부산지역 최초로 ‘부산 기독교 교회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시민 351만4842명의 11.5%인 40만5343명이 기독교인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인구 대비 기독교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서구(21%)이며 해운대구(17%)와 연제구(15%), 동구(14%), 서구(14%) 등의 순이었다. 기독교인 수는 해운대구가 7만554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제구가 3만2037명, 동래구가 2만8846명 등의 순이었다. 부산지역 기독교 교회는 합동·통합·고신·합신·순복음·기침·성결·기감·브니엘·대신 등 39개 교단에 모두 1829개로 조사됐으며, 교회가 가장 많은 지역은 해운대구

로 207개에 달했다. 특히 ‘미자립교회’(재적 기독교인 숫자 100인 이하)로 분류되는 교회는 1162개로 전체의 64%를 차지, 상당 수 교회가 재정자립도가 낮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3차에 걸쳐 교단별 설문조사, 전화·방문조사, 추가 전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진행됐다. 조사대상에서 이단 및 사이비 종교단체는 제외됐다. 이번 전수조사에 참가한 박성규(기확단장) 목사와 이성구(부산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조성국(고신대)·탁지일(부산장신대)·이상규(고신대) 교수 등은 “전수 조사를 통해 기존의 다소 부풀려진 통계에서 벗어나 정확한 부산 기독교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진중세례 다시 증가...이승기도 세례

지난해 세례장병 15만2238명...4년만에 1만여명 늘어

지난해 진중세례를 받은 장병이 2014년보다 1만여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2-14년 3년간 감소세가 이어지다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한국기독교선교연합회(MEAK·이사장 박선희 목사)는 최근 서울 종로구 율곡로 여전도회관에서 제45차 정기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연도별 진중세례(침례)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해 진중세례를 받은 장병은 15만2238명이었다. 1999년 21만6080명과 비교하면 3만명 이상 감소한 수치지만 최근 감소세를 감안하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진중세례 장병 수는 2011년 18만4320명을 기록한 이후 2012년 17

만7110명, 2013년 15만9632명, 2014년 14만1395명으로 3년간 내리막길을 걸었다. MEAK 총무 김대덕 목사는 “최근 MEAK를 중심으로 기독교 군중들의 활동을 돕고 연합사업을 펼치며 대대급 세례를 활성화하는 등 진중세례 확산을 위해 힘을 모은 것이 결실을 맺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MEAK는 올해에도 17차례 육군훈련소 진중세례식과 전국 1004개 근린교회 및 후원교회의 전도활동을 통해 세례 장병을 늘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8월 착공한 육군훈련소 연무대근린교회(군종목사 김종진)의 새 예배당을 성공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연무대근린교회 새 예배당은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대지 기반 조성공사가 70%가량 진행됐다. 근린교회에 따르면 한국교회에 비해 근린교회에 소극적이던 가톨릭과 불교 등 다른 종단들도 최근 근린교회(포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군 사역자는 “90년대까지 한국교회와 근린교회 활동을 주도했다면 지금은 각 종단 간 경쟁이 치열하다”며 “가톨릭의 경우 한 국교회의 ‘진중세례’처럼 ‘진중영세’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강원도 화천군 2337부대 살롱교회 임무환 목사는 “진중세례를 베푸는 것도 필요하지만 계속 믿음을 갖게 하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며 “60만 국군장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국교회와 기도와 관심을 보여 달라”고 말했다. 한편 연무대근린교회는 지난 5일 경기도 용인 새에덴교회(소강석 목

사) 후원으로 진중세례식을 개최했다. 소 목사는 설교에서 “세례식은 기독교의 거룩한 예식”이라며 “오늘 세례를 받은 3500여명의 장병들은 이제 기독교인이 됐다. 군생활은 물론 일평생 예수님 잘 믿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1일 입대한 가수 이승기 씨도 이날 세례를 받았다. 이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무릎 꿇고 소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이씨는 “나이 들어 군에 와 부담이 있었지만 재미있게 군생활을 하고 있다”며 “감사하게도 오늘 세례를 받아 더 기쁘다.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무대근린교회 관계자는 “이씨가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으며 병영생활과 군사훈련에서도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종교난민 1호’ 이란 무슬림 출신 이호жат 목사

선교사로 터키에 ‘네파송’...무슬림 17명에 세례 ‘기적’

지난달 14일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나섬페르시아교회’에서는 아주 특별한 예식이 거행됐다. 평생 무슬림으로 살아온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날 두 명의 이란인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신의 민족과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결심했다. 나섬페르시아교회는 한국에서 정교신학교를 졸업하고 무슬림 목사가 된 이호жат(50) 선교사가 지난 해 4월 개척한 교회다. 이란 출신으로 ‘국내 종교난민 1호’이기도 한 이

선교사는 2014년 6월 외국인노동자 선교단체인 서울 광진구 나섬공동체 나섬교회(유해근 목사)에서 파송됐다. 이날 세례를 준 유해근(54)목사는 설교에서 “놀라운 사실은 교회 개척 10개월 만에 이미 15명의 무슬림이 세례를 받은 것”이라며 “오늘 세례를 받은 두 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이 천국의 소망을 확신했다”고 소개했다. 유 목사는 “수십년 동안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를 했지만 단 한명에 계도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다. 이는 자괴감 섞인 고백도 들은 적이 있다”며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

는 무슬림 선교가 이 선교사에게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역(逆)파송’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원하시는 선교 모델”이라고 했다. 유 목사는 역파송 형태의 복음 전파를 위해 그리스, 인도, 베트남 등의 지경을 넓히고 있다. ‘역파송’이란 선교 대상지 국민을 전도한 뒤 파송 예정국가 안에서 신학교육을 시켜 출신국가 및 같은 문화권 국가에 파송하는 선교 형태를 말한다. 유 목사가 1990년대 초 서울 구로동에서 이주민선교를 시작하면서 처음 사용했다. 이 선교사는 93년 한국에 온 노동자였다. 어렸을 때부터 꾸란을 공부했고 이슬람 문화 속에서 자랐다. 공장에서 일하다 한국말을 배우러 나섬공동체를 찾았다. 한국인 성도들이 보여준 사랑에 감동을 받아 이란인 예배와 성경공부를 통해 예수

님을 영접했다. 2004년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난민자격을 얻어 한국인이 됐다. 수년간 이주민 선교의 리더로 활동했다. 서울장신대와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했고 2013년 10월 목사안수도 받았다. 나섬교회에서 봉사하던 한국인 여성을 만나 결혼한 이 선교사는 ‘이란이씨’ 시조가 됐다. 이 선교사는 “이스탄불에 테러가 자주 일어나 안타깝다”며 “어느 누구도 테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 우리는 더 많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말씀이 생각난다”며 “이 땅에 평화와 사랑을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무슬림에게 더 많이 전하도록 기도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을 남겼다.

기독교자유당 창당대회...의원 5명 이상 배출 기대

동성애이슬람 확산 막고 반기독교법 저지 위해 출범

기독교자유당이 창당대회를 열고 국회 진출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기독교자유당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500여명의 교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창당대회를 열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한국장로회총연합회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 등 교계 단체가 창당에 참여했다.

초대 당 대표엔 탈북난민보호뉴욕협의회 회장인 손영구(뉴욕산정현교회 은퇴) 목사가 선출됐다. 손 목사는 20대 총선일인 오는 4월 13일까지 당 대표를 맡고 이후엔 새로운 대표를 뽑을 계획이다. 창당대회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조일래 한교연 대표회장은 ‘예상 밖의 큰 승리’(삼상 17:45-49)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조 대표회장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다행은 하나

님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골리아에게 승리를 거뒀다”며 “이 나라를 하나님 뜻 안에서 이끌 사람이 선교사 사명을 가지고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일부 참여자는 한손에 성경책, 다른 손엔 작은 태극기를 들고 “아멘”을 외쳤다. 특별기도를 한 전우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성애 허용, 이슬람 차별금지법 등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된 부도덕한 문화가 침투하고 있는데 여호와와 전능한 권능만이 악법을 막을 수 있음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전국 13개 시·도당 기수단의 입장으로 창당대회가 시작됐다. 길자연 전 한기총 대표회장의 창당 선언

에 이어 정인찬 웨스트민스터신학대 총장, 장경동(대전 중문침례교회) 목사의 축사가 이어졌다. 기독교자유당은 4·13총선에서 5명 이상을 당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선 투표율이 50%대일 경우, 5석을 확보하려면 150만-180만표를 얻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은 이를 위해 1000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서명을 많이 받은 개인이나 단체가 비례대표 후보 추천권을 받는다. 현재까지 동성애 대책위원장인 김지연 약사, 한교연, 장경동 목사, 당의 경북대표·부산대표·전남대표 순으로 서명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성서공회, 신촌교회 후원 받아

가나에 2종류 성경 3만여부 기증

대한성서공회(사장 권의현·원쪽)는 2일 경기도 용인 대한성서공회 반포센터에서 서울 신촌교회(이정

의 목사)의 후원으로 아프리카 가나에 ‘트위 아잔테어 성경’ 2만여부와 ‘트위 아쿠아렘어 성경’ 1만여부를

보내는 기증식을 가졌다. 신촌교회는 지난 1월 해외 선교를 위해 ‘가나에 성경 보내기’ 행사를 열었다. 이정희 목사는 기증식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딤후 4:1-2)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우리가 보내는 이 성경 한 권은 한 명의 선교사와 같다”며 “오늘 보내는 이 성

경을 통해 가나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기증한 성경은 가나의 결손 청소년들과 학대받고 있는 여성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성경은 오는 7월 배편으로 부산항을 출발해 다음달 25일 가나의 테마 항에 도착한다.

‘제5회 바이블영화제’, 사순절 ‘고난’ 묵상

기독교 명화로의 초대...내달 16일까지 안산 명화극장서

안산시기독교총연합회와 명화극장은 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경기도 안산 단원구 중앙대로 명화극장에서 ‘고난’에 초점을 둔 ‘제5회 바이블영화제’를 연다. 사순절을 맞아 고난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영화 ‘프리덤’ ‘에스더와 왕’ ‘낮은 데로 임하소서’ 등 영화 23편을 상영한다. 프리덤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작사자인 존 뉴튼 사제의 실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에스더와 왕’은 페르시아 제국시대의 유대인 학살과 관련된 하만의 음모와 ‘지혜의 여인’ 에스더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낮은 데로 임하소서’는 맹인 안요한 목사의 생애를 그린 영화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존경받은 신앙인의 인생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도 선보인다. 일제시대 신사참

배 반대뿐만 아니라 민족계몽운동에 앞장섰던 송양원과 주기철 목사, 문준경 전도사를 다뤘던 ‘아들의 고백’ ‘남도의 백합화’에서 각각 만날 수 있다. 기독교 고전 영화 ‘베헤’ ‘십계’ ‘퀴바디스’도 볼 수 있다. ‘미션’ ‘장미의 이름’ ‘브레이브 하트’ ‘불의 전차’ ‘왕중왕’ 등과 같은 명작도 준비돼 있다. 안산 명화극장은 경기도 유일의 실버 영화관이다. 55세 이상 어른들에게는 2000원, 다문화 가족에게는 3000원의 단체관람을 받는다. 50인 이상의 단체 관람 시에는 원하는 시간대에 영화를 볼 수 있다. 영화제 관계자는 “안산 시민과 기독교인들에게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mission 선교의 창 (50)

선교와 타 문화권 언어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수필가)



타 문화권 선교에 있어서 현지 언어는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다. 언어는 생활이며 문화이다. 기본적인 언어능력 없이 정상적인 생활과 문화적인 이해도 불가능하다. 선교사에게 현지 언어 습득은 단순한 생존뿐만 아니라 선교사명 완수에도 직결되어 있다. 물론 외국어를 잘한다고 선교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현지언어는 선교를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현지언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부작용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하계 된다. 또한 통역 및 현지 조력자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서기가 가능해진다. 자신감을 얻게 되고 사역의 내용도 알차게 된다. 반면에 현지언어 준비가 미흡하면 현지인과 그 문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이것은 기초공사를 하지 않고 높은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과 같다. 후에는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며 장기 사역을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 그러므로 타 문화권 선교는 멀리 내다보고 한 걸음씩 정석의 길을 가야 한다.

회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은 예외이다. 이에 비해 대부분의 나라는 다민족, 다중 언어로 구성되어 있기에 자연히 여러 언어를 쓸 수밖에 없다.

자는 관심 지역에 단기선교로 1-2년 정도 가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현지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되고 학습 기초가 쌓일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다시 장기선교사로 준비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며 현지언어 학습에 촉매제가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려주려면 언어가 소통되어야 한다. 혹은 "세계 공용어인 영어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한다. 이는 웃기는 얘기이다. 한인과 현지인 중에서 영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설사 영어를 말한다 치더라도 이는 서로에게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제대로 전달할 수도 없고 상대방이 들을 수도 없다.

2. 타 문화권 언어 습득의 참된 목표

선교를 위한 현지언어를 준비하

둘째, 한인은 일반적으로 선교지에 도착하는 시간이 너무 늦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장기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의 평균 나이가 30중반이다. 21세기 들어서는 더 늦어졌다. 젊은 헌신자들이 적고 은퇴한 시니어 선교사 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현지 언어에 대한 준비 없이 사역지에 도착하게 된다. 따라서 아무리 열심이 있다 해도 타 문화권 언어 학습에 대한 생물학적 나이는 속

현대는 글로벌 시대이다. 일부 소수의 부족언어를 제외하고 대다수 국가적 언어는 어디서나 교육 자료를 구할 수 있다. 구지 현지에 가지 않고서도 삶의 현장이나 SNS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 인간은 혀가 있는 한 누구나 외국어를 어느 정도까지는 습득할 수 있다. 문제는 열정과 지속성이다.

맺음 말

타 문화권 선교에서 현지언어 습득은 필수적이다. 현지언어 수준과 타 문화 이해도는 정비례한다. 이에 선교사는 현지언어 진보를 위하여 평생 씨름해야 한다.

Herold Cook 교수에 의하면 "영어는 우리의 머리였다 말하나, 고유한 우리 언어는 가슴에다 말을 한다"고 했다. 사실, 말씀을 지식적인 전달로 그치는 것은 선교적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타 문화권 선교를 마음에 두는 자는 평생 그 나라의 언어와 씨름해야 한다. 그렇다면 선교지 언어습득에 대한 중요성과 목표는 무엇이며 한인의 실상과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떠한가?

는 목표는 무엇이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르러야 하는가? 선교사는 아무리 현지언어를 잘한다 해도 원어민과 동일하게 할 수는 없다. 대체로 성경번역 선교사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편적 선교사역은 그렇게 높은 학자적 수준을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지는 언어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언어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 복음전도를 위한 수단이다. 그렇다할지라도 최소한도 현지언어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은 없어야 한다. 나아가 문법적으로 어긋나지 않게 현지어로 설교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가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선교사의 언어 수준보다 어떤 마음으로 실제 사용하는가 관건이다. 아무리 언어 구사력이 뛰어나도 해도 사역적 어휘나 표현방법이 세속적이면 영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일 수가 없다.

인간은 언어적 존재이다. 말로서 서로 소통한다. 음성과 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를 바르게 사용하면 능력이 된다. 말은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 그것들은 생명이서 생명이 되게 하는 항기일 수도 있고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악취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타 문화권 선교를 위해서는 현지 언어의 벽을 넘어야 한다. 선교지에서 그 언어를 습득하지 아니하고는 사역적 뿌리를 깊이 내릴 수는 없다. 외국어 습득은 한 순간에 되어 질 수 없다. 많은 인내 가운데 열심을 다해야 한다.

1. 타 문화권 언어 습득의 중요성

선교사가 현지언어를 배우는 것은 단지 그 말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그들의 정신과 문화를 배우는 것이다. 나아가 언어를 매개체로 그들과 소통하며 사역을 하기 위해서이다. 그 잊점에 대해 선교학자인 J. Herbert Kane은 4가지로 언급했다. 이는 "사람들과의 유대를 증진시키고 문화에 대한 통찰력을 주며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고 선교사에게 자신감을 준다"라고 했다. 지당한 말씀이다.

첫째, 한국은 단일민족, 단일문화, 단일 언어권을 유지해온 나라이다. 지정학적으로도 동북아의 귀퉁이에 위치해 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다양한 언어가 공존하여 사용된 적이 없다. 이는 한국인은 새로운 언어를 접하며 사용할 기

셋째, 대체로 한인 선교사는 일 중심이다. 가능한 빨리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한다. 이러한 자세는 현지언어를 소홀히 준비하기 마련이다. 국제기관의 Language Supervisor들은 "왜 한인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오면 언어공부를 하지 않고 일부터 합니까?"라고 빼 있는 조크를 한다. 이제 갓 온 사람도 그렇거니와 연수가 된 사역자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이미 기초언어를 구사하고 있기에 이 분야에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한인 은 타 문화권 언어를 습득하는데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 가장 대두되는 것은 선교사들이 현지언어를 소홀히 하고 너무 일 중심이라는 것이다. 사역과 언어를 구분할 수 없다. 사역의 효용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언어가 받쳐주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 선교는 곱돌기 쉽다. 왜냐하면 건물에 투자하는 프로젝트 형 사업은 가능하나 사람의 마음을 기경하는 사역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타 문화권 선교를 위해 헌신한 자는 현지언어 진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더 견고한 하나님의 도성을 위해서!

jrson007@hanmail.net

비록 어색하고 문법이 틀린다해도 낯선 이들이 자국어로 접근해오면 누구나 친근감을 느끼기 마련이다. 더구나 현지언어 수준이 높아 갈수록 그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그 땅과 백성을 사랑

3. 타 문화권 언어 습득에 대한 한인들의 약점

첫째, 한국은 단일민족, 단일문화, 단일 언어권을 유지해온 나라이다. 지정학적으로도 동북아의 귀퉁이에 위치해 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다양한 언어가 공존하여 사용된 적이 없다. 이는 한국인은 새로운 언어를 접하며 사용할 기

4. 타 문화권 언어 습득을 위한 제언

언어는 문화이다. 문화가 동반되지 않는 학습은 진보가 어렵다. 또 습득했다 할지라도 현지생활 속에서 응용되지 아니하면 곧 기억에 남지 않게 된다. 아무튼 교실 안에서 학문적인 언어학습은 죽은 언어가 되기 쉽다. 중요한 것은 배우는데 얼마나 노력하며 생활가운데 적용하느냐이다.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언어를 배워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구사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

언어습득의 효과는 나이에 반비례한다. 특히 선교적 열망이 있는

이슬람 선교 뉴스

시리아 무슬림 난민들 가운데 일어나는 부흥

IS는 기독교인들에게만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큼 강경 원리주의를 따르지 않는 무슬림들에게도 박해를 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백만 명의 시리아인들이 모든 것을 버린 채 고향과 고국을 떠났다. 이웃 국가인 레바논의 경우 5명 중 1명이 난민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사람들은 이슬람의 실체를 보았고, 난민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하고 눈이 열려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다.

세계 각지 기독교인들에게 무료로 성경을 지원하는 'Vision Beyond Borders(VBB)'는 무슬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랍어 신약성경 2만권을 인쇄하여 1천권 이상을 난민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들은 음식과 옷 등 난민들의 실제적인 필요들도 돕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역사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불참도록 많은 그리스도인과 선교단체가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

"나이저리아, 끔찍한 핍박 불구 무슬림의 기독교 개종 늘어"

나이저리아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약 11,500명의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13,000여 교회가 불타고 130만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인근 국가로 피신한 상태다. 주로 나이저리아 북부에서 활동하는 보코하람은 2014년 전 세계 테러지수(Global Terrorism Index)에서 가장 악명이 높은 단체로 꼽혔다. 국제오픈도어선교회의 '2016년 박해국가리스트'에 따르면, 작년 나이저리아에서 살해된 기독교인은 4,028명이었고, 공격을 당한 교회는 198개였다.



나이저리아 난민캠프 안의 한 교회 모습

오픈도어와 나이저리아기독협회(CAN)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속적인 연방 주들로 구성된 나이저리아는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부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수십 년간 소외와 차별로 고통을 당했으며, 폭력의 표적이 되어 왔다. 보코하람과 같은 근본주의 무슬림들을 지지하는 이들, 북부의 무슬림 정치·종교 지도자들, 하우사-풀라니 목동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정체성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 하나로 뭉쳐서 북부 기독교인들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의 핍박으로 인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흩어졌고, 멸종되거나 점진적으로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희망의 여지도 남겼다. 폭력과 박해로 떠나가는 기독교인들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눈에 띄지 않게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일부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북부의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예수님이 나오는 꿈을 꾸고 변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많은 무슬림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동료 무슬림들에게 살해나 압박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교회 정책 결정자들, 나이저리아 정부 관리들, 국제단체들이 나이저리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을 인식하고 힘을 합쳐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수화되어가는 인도네시아 무슬림들...기독교에 대한 적대감 커져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이 성장하고 있다. 한국선교연구원(kriM)이 발행하는 선교보고서 파발마 2.0 최근호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대부분 타인의 종교에 참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여겼으며, 엄격한 이슬람 신앙을 고수하거나 이슬람식 의상을 착용하는 것을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여겼다"면서 "그러나 이제 자카르타에서 이슬람은 개인적인 종교 생활이 아닌, 시민들의 정치·법률·문화·경제·교육의 전반을 아우르는 삶의 지점이 되었다"고 전했다. (14면으로 계속)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볼리비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8:28).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벌써 1월을 지나 2월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1.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볼리비아 GMS 선교사 수련회가 산타크루즈(제2의 도시)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현재 이진화 선교사가 볼리비아 지부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지부원들의 아름다운 동참으로 은혜로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2. 벨엘교회 교인들은 2015년 12월 31일 밤 11시부터 1월 1일 밤 12시까지 릴레이 기도를 하였습니다.기도회를 통해 아픈 자가 치유를 받고 소원이 응답되고,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3. 2016년도에 새로 일할 교사(셀리아, 까르멘, 사무엘, 루시오, 이반, 로사리오, 제니, 로사)들이 1월 4일부터 한달간 일대일 양육책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였고, 교회 새 일꾼으로 루시오 형제, 갈리소 형제와 안드레아 자매, 마리아 엘레나 자매, 레베카 자매가 임명되었습니다.

4. 생명의빛교회에는 성경책들이 없어 말씀교육을 잘 할 수 없었는데 청소년들이 성경책을 선물을 받고 아주 기뻐하였습니다. 아직 교회 건

물이 없어 교회를 지을 빈 공터에서 비를 맞으며 예배드리는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하였는데, 2016년 달력과 성경책을 선물 받으며 기뻐하는 이들을 보면서 속히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기를 기도합니다.

5. 비아차의 에베에셀교회 뽀르필리오 형제의 2자녀들이 베니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방학동안 라파즈를 방문하여 교제를 나누었고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갈 수 있어서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방송실이 없어 중단되었던 칸푸파 라디오 방송국이 속히 재개되도록, 안테나를 세우면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 한 층을 더 올린 후 안테나를 세워야 합니다. 지금 13평 정도의 크기에 1층 스피커를 치고 현재 2층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6. 1월 15일 리오아바호 선교관에서 14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회의를 가졌습니다.

점심에는 김성제 선교사가 만든 잡채밥으로 만찬을 하였는데 모두 너무 맛이 있다고 2그릇 씩 먹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듣고 본 것들을 잘 기억하여 개교회에서 적용되기 바랍니다.

7. 지역사회를 돕는 사역으로 김성제 선교사가 산로케 지역 프리아베르테 학교에서 2월부터 영어와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교제를 구할 수가 없어 복사를 하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외국어를 접할 수 없는 곳이라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호기심과 관심이 많습니다.

이 지역은 버스를 4번씩 갈아타고 가는 곳이라 시간도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김성제 선교사가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8. 2월 8-9일은 우리나라는 설날 명절이지만 볼리비아는 사육제(까르나발)로 크게 지키는 축제로, 6일은 전야제로 시작하여 전 국민이 춤과 팔라(고사 같은 것)를 하며 일주일 가량 행사를 합니다. 이 축제로 인해 많은 사생아들과 범죄들이 발생되는데, 크리스천들도 전통으로만 생각하여 동참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범죄하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9. 현직 대통령 예보가 개정된 법을 확정하는 국민 투표가 2월 21일에 있었는데, 현재 반대하는 시위와 찬성하는 시위가 있어, 조금 사회가 혼란합니다. 20일 자정부터 사람들과 차량이 통제되어, 모든 교회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릴수가 없어서 토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하늘나라에 열납됩니다.

기도제목

1.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성령 충만한 한해가 되도록
2. 세워진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도록
3. 태국에서 지부장 모임이 있어 이진화 선교사가 잠시 한국을 방문합니다.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지기를
4. 산로케 프리아 베르테 지역에 생명의빛교회를 임시로 짓고 있는데, 교회부지 땅이 속히 구입되어 교회가 잘 건축되도록
5. 볼리비아가 정치와 사회가 안정되도록

볼리비아 평화의 도시 고산 라파즈에서
이진화, 김성제 선교사 드림
lapazbol@gmail.com

(13면에서 계속)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도 이슬람을 최고 권위로 여기는 근본주의 사상만큼은 시리아-이라크 등과 동일하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무슬림이 아닌 이들은 여러 가지 제약과 차별을 받는다. 인도네시아의 민주화는 공공장소에서 이슬람주의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이슬람 전파의 자유를 옹호하고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인도네시아 기독교 공동체는 이 같은 사회적·종교적 혼란 가운데 기독교를 점점 적대하는 환경에서 소수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또한 기독교 신앙을 탄압하는 문화 속에서 복음의 정수를 잃지 않고 살아야 하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중단하라며 시위하고 있는 파키스탄 기독교인들

는 숙제를 안고 있다. 무슬림이 많은 지역에서 교회 건축은 상당한 제한을 받았으며, 이는 결국 기독교인들의 예배가 불법이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10년 동안 약 1,000개의 교회가 무슬림 폭도에 의해 강제 폐쇄된 것으로 추정했다. 인도네시아의 일부 지역은 가정집에서의 기독교 예배를 금지시켰다. 인도네시아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이슬람법을 집행하고 있는 아체 지역의 무슬림 전사들은 10개 지역의 미허가 교회를 파괴했다고 밝혔으며, 2015년 10월 아체 싱킬에서는 무기를 든 700명의 무슬림 폭도가 교회에 방화해 수천명의 기독교인들이 피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파키스탄 기독교인 남성, 경찰에

나체로 고문-매질 당하다 사망

지난 1월 14일 펀자브 지방의 구즈란왈라 주민 리아카트 마시(47)의 시신이 가족들에게 전달됐다. 마시와 그의 아들 꾸람은 자신들이 15년 이상 운전수로 일했던 무함마드 라자 함메드에 의해 고소를 당한 후 지역 경찰에 체포됐다. 함메드와 그의 아버지는 부유한 무슬림 사업가로, 파키스탄 테러리스트 인사프 경찰당의 지도자다. 함메드는 자신의 집에 도둑이 들어 운전수인 마시를 절도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에 압력을 행사하여 마시와 그 아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게 했다. 경찰은 혐의를 부인하는 그들을 잔인하게 고문했으며, 옷을 벗긴 뒤 손을 등 뒤로 묶고 천정에 매달았다. 마시가 구타와 고문을 이기지 못해 숨을 거두자 의사들은 그가 심장 마비로 죽었다고 주장했으며, 구타로 인한 수많은 상처들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다.

파키스탄의 부패한 법은 무슬림들이 소수종교인들을 상대로 개인적인 불만을 해소하는 데 이용되곤 한다. 파키스탄은 2016년 오픈도어선교회 발표한 박해국가순위 6위에 올랐다. 오픈도어선교회 관계자는 “파키스탄 내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의 순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전했다.

인도 무슬림 의사, 암치유 기적 후 회심... 무슬림 수백명 전도하고 50교회 개척

26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복음이 가장 전해지지 않은 지역 중 하나인 인도에서 헌신적인 무슬림이었던 한 의사가 암이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한 후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그는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렸으며, 박해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무슬림 수백명을 예수께로 인도하였고, 지금까지 50개의 가정교회를 개척한 사실이 알려졌다.

(목요기도운동)

십자말 • Cross Word (117)

김기호 장로(본지 교문)

| | | | | | |
|----|----|----|----|----|----|
| 1 | 2 | 3 | 4 | | |
| 5 | | 6 | | 7 | 8 |
| | 9 | | 10 | | |
| 11 | | 12 | 13 | | |
| | | 14 | | | |
| 15 | 16 | | 17 | 18 | 19 |
| | | | | | |
| 20 | 21 | 22 | 23 | 24 | |
| | | | | | |
| | | | 26 | | |

<가로 푸는 열쇠>

1. 말린 포도(민6:3).
2. 예수님의 생일을 알리며 기뻐서 치는 중.
3. 싸움 터(사8:13).
4. 세례 베푸는 일이나 성찬식을 하는 일.
5.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의 밤 시간을 다섯으로 나누었을 때 네 번째 시간(마14:25).
6.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네 번째 절규. 엘리 엘리 라마 OOOO(마27:46).
7. 다 함이 없이 오래고 오랜, 영원하여 끝이 없음(출15:18).
8. 유다지파 미스바지방을 다스린 사람(느3:15).
9.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성에서 나면서 앓은병이 된 자를 고침(행14:8).
10. 임금이 거쳐하는 궁전을 지키며 돌보는 사람(행19:35).
11. 공관복음의 제2 복음서의 저자.
12. 미리 준비하는 날(마27:62).
13. 잇사갈의 성읍(수19:19).
14. 장사 지내는 법도(요19:40).
15. 심판하는 자리(롬14:10).

<세로 푸는 열쇠>

1. 씩씩하고 굳센(창49:14).
2. 서울 또는 도읍 둘레에 둘러 성곽을 말한다(창36:32).
3. 한탄하는 한숨(출2:23).
4. 어느 일에 마음과 힘을 다 함(민4:37).
5. 기독교의 한 교적. 전도의 임무를 맡은 사람(삼시).
6. 이세 왕조가 살던 궁정의 이름(삼시).
7. 예수의 조상이다. 요셉의 아버지(눅3:26).
8. 평탄한 들판(신3:10).
9. 예루살렘교회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으로, 안디옥 사람(행6:5).
10. 영원 전(롬16:25).
11. 호세아의 딸에게 붙여진 새 이름(호2:1).
12. 노아와 아브라함의 후손이로다 했다(창25:3).
13. 깨달아 마음을 작정함(행21:13).
14. 이스라엘의 제5대 사사가 되어 40년간 태평하게 하였다(삿7:2).
15. 임시로 거처지로 꾸밈(고후11:13).
16. 예의 나 몸가짐의 법칙(히9:1).
17. 한 마음(수9:2).
18. 시간을 역사적으로 나눈 한 기간(출1:6).

십자말 정답

| | | | | | | | | | |
|---|---|---|---|---|---|---|---|---|---|
| 말 | 포 | 도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PRINTING & PROMOTION

프린팅 & 프로모션

각종 인쇄물과 다양한 판촉물 교회 행사에 필수!!

BOOKS KOREANA 한국서적
BOOKS KOREANA, INC
월-토: 오전 9:30-오후 8:00

- 기독교서적
- 기독교용품
- 일반서적
- 서예용품 전문
- 2016년 달력제작

CJ택배 ups
한국으로 택배 미국내 택배

상담 환영!
교회에서 행사할 때 수련회 단체 T셔츠 한글학교 단체복 원하는 디자인으로 해드립니다.

이메일 상담과 주문
bookskorea@gmail.com

판촉볼펜

주보/헌금봉투

교회책자

단체 T셔츠 전문

책 만들어 드립니다.

각종 상패 타올

머그컵

교회/매장/기타단체

전화: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05)

7. 안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안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Back to Basics) (29)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한인 교회교육을 위한 철학적 기초인 "성경적 세계관 및 인생관에 근거한 성경적 교육관" 그 기본적인 철학적 담론들 중 형이상학(Metaphysics)이라는 범주와 가치론(Axiology)이라는 범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철학의 기본적 담론들 중 마지막인 인식론(Epistemology)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식론(Epistemology)이란 기본적으로 앎(Knowing)과 지식(Knowledge)에 관련된 철학적 담론입니다. 주로 지식과 앎의 본질, 근원, 범위, 구성, 그리고 한계 등에 대해 연구합니다. 어떻게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실재란 무엇이고, 믿음은 무엇이고, 또한 진리란 무엇인가? 무엇

되어 건강한 교육의 실행을 방해하는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 한인들과 한인자녀들이 기독교인으로서 그들의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우며, 그 안에서 바르게 관계 맺으며 살아가도록 돕는 "성경적인 인식론이 무엇인가"일 것입니다. 많은 세상 철학들의 앎과 지식의 출발점은 성경이 말하는 앎과 지식의 출발점과 다르다는 것이 가장 극명한 차이일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은 인간이 앎의 주체가 되어 신과 세상(자연 및 그 안에 있는 인간들, 물질들 및 구조물)을 알아가고자 하고, 진리는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관점은 하나님 자신과 창조세계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Revelation)가 인식론의 핵심입니다.

와 진리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언제든지 관철되어야 하는 가치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 철학은 인간은 진화되었으며, 이러한 견해가 보다 과학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세상의 사회는 힘 있는 자의 힘없는 자들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공공연하게 지지하며 평등한 인간관계라는 진리를 현상학적으로 실재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성경적인 인식론이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지식과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진리를 알게 되는, 이성적이고도 초월적인 과정에 대한 담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인식론은 성경적인 세계관의 기초

성경적 인식론은 하나님 자신과 창조세계, 말씀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핵심 초월과 인간 오감 및 이성인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인간이해 위한 보완도구

인가가 실재하며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근거는 무엇인가? 등의 질문들을 하고 이에 대답해 가는 과정의 산물을 우리는 인식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19세기 스코틀랜드 철학자인 페리어 (James Frederick Ferrier)가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지식론(Theory of Knowing; Theory of Knowledge)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식론은 앞서의 다른 철학적 담론들보다 훨씬 우리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교육자에게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노력인 교육이라는 것과 지식 및 앎에 대한 이론은 떨어질 레아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니까요. 이를 생각한다면,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철학적 기초로서 인식론적 기초를 가져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사실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로서 인식론적 기초가 필요함에 동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인식론적 기초를 가져야 하느냐의 문제이기에, 정말로 어려운 일은 교육과 인식론에 관한 세속적인 가치와 관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는 현대사회에서, 성경적인 인식론에 대한 정확한 인식 및 확고한 신념을 세워 이에 바탕을 두고, 어떠한 가치와 관점이 성경적인 인식론과 부합하여 실용적 소용이 될 수 있으며 어떠한 것들이 성경적 인식론과 반대

진리란 인간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에,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진리를 깨달을 수 없으며,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 또한 계시를 통해 분명해지며 확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인간의 오감을 통한 경험 혹은 과학적 실험과 이성에 활동에 의한 논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하기도 하고, 물질적인 것만이 실재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고도 하고, 우리가 가지는 것들과 "진리"라고 일컬어지는 것조차 불변하는 것은 없으며 상대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독교 교육을 행하는 모든 이들이 가져야 할 성경적인 교육철학적 기초에, 특히 인식론적 기초에 반하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 자체가 초월적인 존재이시고 인간의 오감으로 알 수 없으며, 과학이나 이성적 사유로 다 헤아릴 수 없고, 또한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 주신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거나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불변하며 어느 상황에서나 절대적인 것이니까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평등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계시된 진리이며, 불변하며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오감 및 경험, 과학적 실험이나 이성적 논증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통해 알게 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가치

중에 기초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선물로 주신 감각들과 이성을 사용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져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세상과 자기 자신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진리와 그의 미를 알아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성경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선악 이해를 분별할 수 있는 성경적 관점 즉 성경적인 세계관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사역자들은 성경적 인식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섬기는 한인들과 한인 자녀들에게 이를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하도 다양한 학문들과 철학들이 등장하여 사회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서도 득세하다 보니, 교인들에게 이성적 판단과 논리가 아니라 초월성 및 계시에 근거를 둔 철학적 담론으로 성경적 진리를 선포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공허하고 어리석게 들려질까 우려할 수도 있지만, 초월과 인간의 오감 및 이성이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이기에 그 해답이 되게 하시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들이 서로 상치되는 것들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sinaichung@yahoo.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캠보디아선교사)

월 용서의 중요성(마6:14-15)찬190장

하나님 백성의 생활에 용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에 또 언급하셨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 표현으로서 모든 관계를 원활하게 합니다. 어떻게 용서해야 합니까? 첫째, 천부가 용서하신 것과 같은 마음으로 용서해야 합니다(14). 우리가 받은 용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까닭은 죄로 인해 죽었던 자가 그의 용서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를 받은 경험

을 가진 우리는 모두를 용서하는 것이 자연스런 일이고 그 용서로 모든 관계가 더 아름답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용서 없는 마음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해 불모지와 같이 죽음의 땅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관계생활에 용서의 마음이 있을 때 사랑으로 연결시킴으로서 천국의 귀한 맛을 누리게 됩니다.

화 금식의 원리(마6:16-18)찬192장

금식은 건강한 신앙생활에 요구되는 한 은혜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 귀한 것이 외식에 의해 잘못 사용될 때 교만의 도구가 돼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첫째,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과만 상대해야 합니다(16). 귀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이 간구할 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금식 후에 임하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흉악한 결박을 풀어야 합니다(18, 사59:6 참조). 어떤 이유든지 이웃을 억압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태도의 금식은 영적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맺힌 것은 반드시 풀기 위하여 의도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마음이 귀합니다. 비참한 이 시대에 참 금식으로 새벽이슬 같은 큰 은혜를 받으십시오.

으로 여기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소중히 바칠 때 주께서 은혜주십니다. 둘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그의 말씀과 사상에 내 사랑을 굴복시킬 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노력으로 살아 망한 사람과 비교하여 복음의 삶입니다.

수 돈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는 방법(마6:19-24)찬221장

돈은 하나의 귀한 생활수단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악이 되기도 하고 선이 되기도 합니다. 신자의 생활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에 절름을 당해 일민약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어떻게 이 굴레를 벗어날까요? 첫째,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땅에 쌓는 것은 물질주의의 삶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길이 오직 하나님께 더 무게를 둘

로 여기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소중히 바칠 때 주께서 은혜주십니다. 둘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그의 말씀과 사상에 내 사랑을 굴복시킬 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노력으로 살아 망한 사람과 비교하여 복음의 삶입니다.

목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마6:25-32)찬478장

염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생명이 이르는 염려는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 필요하나 사망에 이르는 염려는 모든 멸망의 울무가 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은 어떠하십니까? 첫째,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기 때문입니다(25-28). 공중의 새, 기, 들의 백합화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 나온 것처럼 자기 백성의 모든 것을 친히 준

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이레의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준비됐습니다. 둘째,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31-32).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두심은 우리로 참 믿음을 위에서 살게 하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불신앙 태도를 벗어나 천부가 아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은혜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천국백성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금 그의 나라가 임할 때(마6:33-34)

주의 나라가 임하는 주기도의 간구대로 그 나라는 어떻게 임하며 어떤 결과가 따를지? 첫째, 그 나라는 그의 의를 구할 때 임합니다. 하나님나라의 의란 하나님의 의입니다. 모든 것의 표준인 그의 의가 세워질 때 영광이 있고 희락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의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둘째, 그 결과는 모든 것이 담으로 주어집니다. 그렇게 추구하던 의식주의 문제가 위로부터

옴을 배울 때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걸게 됩니다. 셋째, 어린 아이 같이 단순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곧, 순간을 모두 주께 맡기고 그로부터 오는 은혜를 기다리며 그것으로만 만족함을 가진 최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있는지 살펴봅시다.

토 비판에 관한 가르침(마7:1-5)

인선을 위한 판단은 필요한 것이나 이웃을 비판하는 행위는 악에서 나옵니다. 주님은 두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받는다고 합니다(1-2).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는 원리가 여기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행한 그 비판과 그 해아림으로 도로 받기 때문입니다. 둘째, 외식자의 눈으로 보기에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

제나 하나님의 빛 안에서 나의 빛을 본다 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네 속의 들보를 빼라고 가르치십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자만이 바로 보고 자신을 먼저 살피는 지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개귀를 잡는 것과 같은 행위는 행하는 성도에게 금물입니다. 자기 성찰을 힘써십시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 | | | | | | |
|---|---|--|---|---|--|---|
| <p>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www.kuml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구 광운동 340-1(131-231)</p> | <p>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p> | <p>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876(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p> | <p>새이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p> | <p>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호2동 1330-20</p> | <p>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www.seongsil.or.kr Tel. (02)12-990-998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3동 22-43 (142-073)</p> | <p>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p> |
| <p>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04(270)</p> | <p>승송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Tel. (02)732-2341~3, 사택: (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로동 137 번지</p> | <p>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화동 419-2</p> | <p>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용 Tel. (82)2-842-1968, 사택: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p> | <p>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중구 광복동로 17길 29(남양동)</p> | <p>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Tel. (82)2-786-6579, 사택: (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p> | <p>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Tel. (011)82-2-927-5511 서울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p> |
| <p>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월영로 415 www.yangokg.org</p> | <p>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p> | <p>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p> | <p>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Tel. (82)32-527-2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104(403-838)</p> | <p>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p> | <p>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p> | <p>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p> |

전 도시 총력전도 & 다민족 연합기도회 AZUSA NOW

LOS ANGELES MEMORIAL COLISEUM

2016.4.9 SAT 7-9AM
LA 메모리얼 콜로세움

역사적 Azusa Now 전 도시 총력전도 &
다민족 연합기도회에 초청합니다

📌 일시: 2016년 4월 9일 토요일

“한인들의 연합된 기도가 미국의 새벽을 깨우며 기적을 이룰 것입니다!”

7:00 am – 9:00 am (한인 인도 기도시간)

4:00 am – 10:00 pm (도시 총력 복음전도 초청 집회)

📌 장소: LA 메모리얼 콜로세움 (USC 경기장)

3911 S. Figueroa St., Los Angeles, CA 90037

📌 주최: The Call과 미국 주류 선교단체 연합 (대표 루 잉글 목사)

📌 한인 주관: Azusa Now 한인 준비위원회(박희민 목사, 신승훈 목사,
진유철 목사와 공동대표들),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 각 교단,
각 지역교협 및 목사회, 기독단체들, 한인교회들

📌 주관언론사 : 크리스천헤럴드 (CHTV18.88/www.chtv1888.org)

“한인교회 총동원 부활절 도시 전도 실천의 날로
3월 27일 부활절 오후 2시부터 1,300개 남가주 한인교회마다...”

남가주에 있는 모든 도시마다 총력전도가 일어나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개척교회 및 미자립교회를 위해 무료 부활주일 전도세트(Easter Bag)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동참을 희망하시는 교회들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세요!

문의: **Azusa Now** 한인 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 이성우 목사)
213-384-5232/213-598-5323, laholycity@yahoo.com

REGISTER AT **AZUSANOW2016.COM**